

잠시후면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제 심정은 진실하기에 몇몇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유서대필자, 자살방조범이라는 범죄자의 굴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씌우려드는 공권력에 맞서 제 양심을 지키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권력에 의해 진실과 양심이 대개의 포탈처럼 물려버림으로서 우리 사회가 거짓과 비양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무고한 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의해 끝내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검찰의 조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공정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부릅뜬 눈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농성기간중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땅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에게 상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 손을 꼭 잡아주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신 많은 시민들과 종교계의 지도자 분들, 특히 카톨릭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는 진실은 통한다는 믿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갖은 피해를 감수해 온 명동성당 관계자 여러분들과 신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1. 6. 24.

명동성당에서 강기훈

◎ 91년 6월 25일 ◎

☐자료 가-1-119 (수사기록 686~687))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남기춘
제목 수사보고

1991. 6. 25.

위건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본적 경기도
주거 서울
임무 명

2. 수사사항

상기 임무명을 검거코저 주거지에 입하여 임무명이 전세를 살았던 집주인 김동희 당44세를 상대로 수사한 바 임무명은 90. 2경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가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약 2개월전에 하처인지 무단전출하여 소재불능이유기 수사보고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표 1부. 끝.

파견근무
경장 한형섭

*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594~595)

☐자료 가-1-120 (수사기록 709)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박상도
제목 수사보고

1991. 6. 25.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대상자
본적 서울
주거 상동

2. 수사대상

동인 주거지에 입하여 부 임옥산 당60세(개인택시)를 면접한 바, 동인은 3남 2녀중 차남이고 형 임용수는 현재 외국(벨기에)에 유학중이고 누나는 출가하고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국민학생을 상대로 과의업을 하고 있고 남동생은 대입 재수생으로 동인은 90. 1월경부터 현재까지 마포구 성산동 253-16호 소재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전화 335-3261, 338-2387)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91. 6. 24.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고 하여 근무지 사무실을 확인하고, 부근에서 동인의 친구로 위장하고 전화로 문의한 바 경남 창원 방면으로 출장중이라고 하면서 금일 밤늦게 아니면 내일 온다고 하여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잠복 근무중이유기 보고합니다.

서울지검 파견경찰관
경장 진용갑

☐자료 가-1-121 (수사기록 710~729)

피의자 신문조사

주민등록번호

성명 강기훈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6. 2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보) 임영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강기훈(姜基勳),

연령은 27세 생년월일 1964. 3. 29.생,

피의자 신문 조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작성장소	
19 91 6 2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
경관주사(보)	임영근
첨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성명은 강기훈 (강기훈) 연령은 27 세 생년월일 19 64 3 29 생 직업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직장 전화번호는 본적은 서울시 주거는 서울 3 자택 전화번호는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요?
답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후 1987. 7. 8자 가석방되어(형기종료일 1987. 11. 30.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직업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직장 전화번호는
본적은 서울시
주거는 서울 /
자택 전화번호는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후 1987. 7. 8자 가석방되어(형기종료일 1987. 11. 30.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병역사항을 진술하시오.

답 : 1985. 3.경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았는데 교도소 복역관계로 면제 되었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 1977년도 2월경 서울 무학국교를 졸업하고 그 해 성수중학교에 입학하여 1979년도 2월경 성수중학교를 졸업한 후 세종국교에 입학 1982년 2월경 단국대학교 문리대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5년 8월경 4학년때 시위 등의 관계로 학사경고 제적된 사실이 있으며,

경력으로는 대학 2학년 때인 1983년도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84년도 말경에 학내에

있는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여 1985. 2월경 위 위원회가 민주화추진위원회로 개칭될 때 민주화추진위원장으로 피선되고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위 위원회 대표자격으로 총학생회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총학생회 발족 후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활동하고 동년 11. 18. 민정당연수원 농성사건에 참여하여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복역 후 출소한 이후 89년 초순까지 특별한 일 없이 지내다가 동년 5월경 전민련에 가입하여 현재 총무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가족사항을 진술하시오.

답 : 위 주거지에 부 강태열 64세 신앙국민학교 교

사, 모 권태영 57세 가사, 남동생 기천 24세 포항공대 석사과정, 여동생 은옥 이대 법학과 2년, 등과 같이 살고 있으며 조부와 조모는 전북 삼례에 살고 계십니다.

문 : 피의자의 재산정도는 어떠한가요?

답 : 주거지에 아버지 명의의 30평 정도의 단독주택 약1억 상당이 있으며 아버지의 월급 월 100여 만 원으로 생활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문 :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988년 2월부터 동년 6월까지 민중의 당에 가입하여 평당원으로 선전담당을 한 사실이 있으며 전민련 외의 사회단체는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훈장이나 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건강은 어떠한가요?

답 :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1991. 5. 8. 서강대학교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제가 일하고 있는 전민련 사회부장으로 그날 뉴스를 듣고 분신사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김기설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자살방조혐의로 검찰의 소환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91. 5. 23.경 누군가가 명동성당에 있는 저에게 소환장을 전달하여 주었는데 나오고 싶지 않아서 불응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91. 5. 26.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그 무렵 방송이나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런데도 피의자가 91. 6. 24.까지 한달 동안이나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며 은신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영장이 발부되었을 당시 일반 국민 중에 사건을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아줄 사람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었

습니다.

문 : 피의자는 91. 6. 24. 성당에서 나서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었는데 자진출두의 뜻이 있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가 자진출두한 것은 피의자가 저지른 죄값을 받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는가요?

답 : 저는 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자진출두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진상을 밝히겠다고 출두한 피의자가 6월 24일 10시 20분경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도착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조사가 시작된 오후 1시 30분부터 오랜시간 동안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저의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전에 피의자의 자필로 인적사항 학력, 경력, 5월중의 행적,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1991. 5. 8.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과 알게 된 경위 및 죽기전까지의 관계를 말하여보시오.

답 : 김기설을 처음 만난 것은 1990. 12. 말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기설이 새로이 전민련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여 인사를 나누었고 91. 1. 중순 여자친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제 친구 이영미의 가까운 친구이며 저의 후배인 홍성은양을 소개해 준 일이 있고 그 후 2월달에도 위 4인이 같이 만났던 일이 있었으나 김기설과는 저는 사무실 내에서 소속분야가 다르고 또 김기설은 외근 저는 내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주 접촉할 기회가 없었고 마지막 만난 것은 지난 5. 4. 연세대 법대위의 파견되어 있던 실무자들이 그날 시위 끝에 전민련 사무실에 들렀는데 김기설이도 같이 왔기에 인사를 나누는 기억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와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양과의 관계를 말하시오.

답 : 홍성은양은 대학교 후배이기는 하나 90년 가을쯤 저의 여자친구인 이영미와 같이 만나 아는 정도이고 김기설을 홍양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두번 정도 만났고 5. 5 저녁에 저와 저의 대학후배인 김진수, 저의 여자친구인 이영미와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고 김기설이 사망한 5. 8 연세대 입구에서 만난 일이 있으며 그 후에도 5. 10. 두 차례, 5. 12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기설이 사망하기 전날인 5월 7일 밤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5월 7일 밤늦게 홍양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슨 전화번호 하나를 불러준 것 같습니다.

문 : 홍성은양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김기설이 죽었으니 피의자로서는 그것이 누구의 전화번호였고, 무슨 부탁이었던지를 당연히 기억할 만하지 아니한가요.

답 : 저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그날 통화할 때 피의자가 홍양에게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혹시 피의자가 김기설이가 다음날 죽으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김기설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피의자에게 알려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2일전인 5월 5일 밤 늦게까지 홍양을 데리고 술을 마시러 다닌 일을 사과 하였던 것이고, 김기설의 죽음에 관한 관련이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문 : 김기설이 사망한 후 5월 10일 오후에 홍양과 단 둘이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장소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5월 10일 오후 2-3시쯤 종로 5가에 있는 봉주르카페에서 홍양을 만났는데 자기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하기에 "사실대로 의연하게 대처하되 사람 이름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문 : 홍양은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술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대답하라"고 하여 홍양은 그 말을 김기설의 수첩이나 피의자의 여자친구 이영미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 저와 홍양이 한 말 중에 저의 여자친구 이영미양을 끌어드리지 말자는 뜻은 서로 통한 것 같은데 수첩에 대하여는 제가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그날 봉주르카페에서 피의자가 김기설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다"며 "빨리 잊어버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김기설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학력, 경력 등을 숙인 점 등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홍양에게도 좋은 추억만 남기고 빨리 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의 말을 하였습니다.

문 : 그날 봉주르카페에서 피의자는 홍성은이 가지고 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4324년 수첩(조국은 하나다) 제일 뒷장에 피의자의 글씨로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어준 사실이 있는가요.

이때 검사는 증제 7-1호 수첩 제일 뒷면 모눈종이 부분36)을 제시하고 열람케 한다.

답 : 이것은 제 글씨가 아니며 써준 일도 없습니다.

문 : 홍성은양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을 빨리 잊으라고 한 사람이 김기설이가 죽어버린 마당에 자신의 수첩에다가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며 그후 피의자가 김기설의 필적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91. 5. 12 김기설의 장례가 끝난 후 피의자 홍양과 같이 술을 마신 일이 있는가요.

답 : 5월 12일 장례가 끝난 후 밤 10시경부터 종로 5가에 있는 도이취호프집에서 저와 친구 김진수, 여자친구 이영미 그리고 홍성은이 함께 생맥주를 두세 잔 하였습니다.

문 : 그 자리에서 피의자의 친구 김진수는 홍성은 양을 기자회견에 내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성은이를

36) 총자료집 I책 107쪽 참조.

등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라고 말할 때 피의자는 "이미 옆질러진 물이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진수가 그런 말을 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가 김진수는 김기설의 죽음에 유서를 대필하여 주는 등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홍성은양이 노출되고 그로 인하여 꼬리가 잠깐까 두려워하다가 별탈없이 검찰의 사체인도 지휘가 나가고 김기설의 장례를 마치게 되자 마음이 놓여서 그전까지 걱정하던 긴장이 풀려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91. 5. 13. 홍성은양이 검찰에 연행되었을 때에도 방수연, 이정, 이영미, 김진수 등과 만나 사후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5월 13일 밤에 신촌에 있는 주점에서 위 사람들과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친구끼리 만났을 뿐이고 무슨 사후 대책을 의논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 이영미, 이정 등의 진술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도 이영미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이영미가 홍성은과 김기설을 소개해 준 사실은 검찰에 나가서 진술하지 말자"고 의논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문 :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전민련측에선 5월 20일에 뒤늦게서야 검찰의 요청을 받고 김기설의 수첩이라는 것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피의자는 그 수첩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5월 19일 밤에 명동성당에서 전민련으로부터 조적국의 김현수부장이 가져온 수첩을 본 일이 있습니다.

문 : 그 수첩은 이삼일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로 옮겨져 있었는데 그때 피의자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이미 그 수첩을 보았거나 만진 사실이 있지 아니한가요.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91. 5. 11.에도 전민련측에서는 위 김기설의 수첩이라는 것 대신 김기설의 글씨라며 업무일지를 제

출하였는데 피의자는 그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그무렵 전민련 사무실에서 사회국부장 임무영이가 그 업무일지를 연세대에 있는 대책위측에 갔다 주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민련 사무실의 내근직원이라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세대에 가 있었던 기간중인 5월 8일부터 위 5월 11일까지 사이에 주로 전민련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그 기간중에 전민련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의자 이외에 누구누구인가요.

답 : 조적국의 부장 김형민, 김현수 그리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노운협의원 직원 두세 명이었습니다.

문 : 김기설의 가족으로부터 김기설 명의의 유서가 그 필적과 내용에 있어서 김기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는 진정이 있어 수사한 결과 김기설의 필적들은 유서의 필적과 다르고 오히려 유서의 필적은 피의자의 필적이라고 감정결과 밝혀졌는데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언제 어디서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주게 되었는가요.

답 : 저는 유서를 대신 써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증제1-6호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 37) 증제3-1호 메모지(김기설 필적), 38) 증제 2-1호 김기설의 자필인 주민등록본실신고서, 39) 증제 10-1호 김기설 작성이력서, 40) 증제13-1호 김기설의 연말카드, 41) 증제13-2호 김기설의 편지42) 등을 제시 하고 열람케 한 후,

문 : 유서의 필적과 나머지 김기설의 필적 5가지는 육안으로 보기에 그 글씨가 서로 달라 보일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나머지 5가지 필적은 상이하고 유서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필적은 서로 동일한 필적이라고 밝혀졌는데 피의자가 본 결과 어떠한가요.

답 : 제가 보기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37) 총자료집 I책 27쪽 참조.

38) 총자료집 I책 74쪽 참조.

39) 총자료집 I책 44쪽 참조.

40) 총자료집 I책 216쪽 참조.

41) 총자료집 I책 230쪽 참조.

42) 총자료집 I책 232쪽 참조.

이때 다시 피의자에게 증제5-1호 전민련 제출 사회국 업무일지, 43) 증제7-2호 홍성은 제출 메모지, 44) 증제 11-1호 전민련 제출 전민련 수첩45)을 제시하고 열람케 한 후

문 : 위 3가지 필적은 각각 전민련과 홍성은으로부터 김기설의 필적일 것이라며 제출되었던 것인데 감정결과 세 가지 필적은 동일하고 유서의 필적과는 같으며 위에 제시하였던 김기설의 필적과는 다르다고 밝혀졌는데 피의자가 살펴보니 어떠한가요

답 : 세 가지 필적이 서로 같고 그것이 유서의 필적과도 같은 글씨체라는 것이 틀림이 없으며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위 5가지의 글씨체와는 동일인의 것인지 아니던간에 육안으로 글씨의 모양이 달라보입니다. 이때 다시 증제11-1호 전민련 수첩을 제시 열람케 한 후,

문 : 위 수첩은 전민련측에서 91. 5. 8. 홍성은으로부터 회수하였던 것이라며 경찰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 20.에야 뒤늦게 제출된 수첩인데 참고인 홍성은, 이보령, 이정 등의 진술에 의하면 수첩의 모양, 기재된 글씨, 형태 등에 있어서 본래 김기설의 수첩과 다를 뿐 아니라 감정결과 전화번호부 기재부분이 본래의 온전한 수첩으로부터 4장이 없어지고 그 대신 3장이 끼워져 있는데 그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된 부분과 잔여부분이 겹쳐져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 피의자도 위 수첩을 절취된 부분과 그 부분의 확대사진을 보았으니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목록부담하다.

이때 91. 5. 16. 강기훈의 집에서 압수된 서류들 중 증제9-1호 수신 김명훈 발신 김정훈 서류 1매, 46) 증제9-10호 사투의 의의, 증제9-16호 "what is chap 2-end", 증제9-2-9호, 증제9-16호 잡서류, 증제9-24호 90년 전민련 수첩, 증제9-126호 "Two Tac" 등을 각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문 : 위 필적들은 모두 피의자의 집에서 압수된 것으로 피의자의 소지품으로 판단되는데 각각 피의자의 글씨인지 아닌지를 말하여 보시오

답 : 증제9-1호47)는 제 글씨가 아니고 저의 동지인

43) 총자료집 I 책 81쪽 참조.

김명훈(가명) 명의의 글씨이며, 증제9-10호48)는 저의 글씨이고, 증제9-16호49)도 저의 글씨이며, 증제9-9호 화학노트50)는 저의 글씨이고, 증제9-24호51)의 글씨도 저의 것이며, 증제9-126호52)도 저의 글씨가 틀림없습니다.

이때 검사는 증제8-1호5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85형 43084, 43085호 수사기록 제82정 자술서, 제83정에서 85정까지의 진술서, 제307정-310정 진술서, 등 기록에 편철된 강기훈 명의의 향소이유서를 각 제시하고 열람케 한 후,

문 : 이 서류들은 모두 피의자 명의이며 서명과 무인, 간인이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글씨가 틀림없는가요

답 : 예, 모두 저의 글씨임에 틀림없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증제9-9호 피의자의 화학노트, 증제8-1 사건기록 중 피의자의 진술서 등과 위에 제시한 김기설 명의의 유서 및 증제7-2호 홍성은 제출 메모지, 증제5-1호 전민련업무일지, 증제11-1호 전민련 수첩은 모두 동일필적으로 밝혀져 피의자가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의자는 왜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였는가요

답 : 저는 대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성당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성당내에서 은거 농성하고 결국 한달 반 가량이 지난 후 성당측의 철수요청에 못이겨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경찰의 검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에서 자진출두한다는 명목으로 검거된 것은 바로 피의자가 위 유서를 대필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처벌

44)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45) 총자료집 I 책 716쪽 참조.

46) '수신:김정훈 발신:김명훈'의 오기.

47) 총자료집 I 책 651쪽 참조.

48) 총자료집 I 책 659쪽 참조.

49) 총자료집 I 책 661쪽 참조.

50) 총자료집 I 책 655쪽 참조.

51) 총자료집 I 책 665쪽 참조.

52) 총자료집 I 책 711쪽 참조.

53) 총자료집 I 책 109쪽 참조.

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아니한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전민련 측에서 김기설의 글씨라며 5월 11일 제출한 업무일지와 5월 20일에 검찰의 독촉을 받고 뒤늦게 제출한 전민련 수첩이 모두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고 유서와 같은 필적이며 동시에 피의자의 필적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민련 수첩은 그 절취부분 글씨 색깔 등에 비추어 수첩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업무일지와 수첩이 전민련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피의자는 전민련 사무실의 내근 직원으로서 위 서류들을 손쉽게 접할 위치에 있었음에 비추어 피의자가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고 위 업무일지와 수첩을 피의자의 글씨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아니한가요

답 : 수첩, 업무일지와 유서는 고 김기설의 필적이고 저는 업무일지나 수첩을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홍성은의 수첩에도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한 사실에 비추어 유서를 대필하여 놓고 그것이 김기설의 필적이양 위장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가요

답 : 그것은 명확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5월 10일, 5월 12일, 5월 13일 등에 걸쳐 참고인 홍성은과 이영미, 등에게 수첩존재의 묵비, 관련참고인인 이영미의 존재나 이영미와 김기설의 관계 등에 대하여 위 참고인들에게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유서를 대필한 것이 틀림없지 아니한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그밖에도 김기설이 죽기 전날인 5월 7일 밤 홍성은과 전화통화시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한 사실이나 5월 12일 밤 김기설의 장례 후 김진수가 홍성을을 노출시킨 것이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할 때 피의자가 엇지러진 물이다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고 김기설의 죽음에 피의자가 깊이 관여하였고 유서를 대필해준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명동성당에 있으면서 김기설의 필적 등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감정을 요청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터인데도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증거자료들은 법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91. 5. 20. 승의여전 학생회에서 고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메모 1매를 전민련측에 제출하고 다음날인 5월 21일 위 학생회장 이보령 등이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5월 20일 승의여전 학생들이 메모를 가져온 사실은 몰랐으나 5월 21일 기자회견 때는 같이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문 : 5월 20일 밤에 위 학생들이 메모지 원본을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에게 넘겨주고 돌아간 후 5월 21일 오후 2시에 다시 명동성당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91. 6. 8. 오후 3시경 검찰의 출석요청을 받은 위 승의여전 학생회장 이보령 의 1명이 검찰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의논하기 위해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서준식 등 전민련 관계자와 이모 변호사를 만나 예행 연습을 하였는데 피의자도 알고 있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그날 위 문화관에서 이모 변호사는 승의여전 학생 이보령 의 1명에게 검찰에 나가 진술을 할 때에 위 메모지를 5월 20일에 서준식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 말고 5월 2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비로서 전민련 측에 넘겨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요

답 : 저는 모릅니다.

문 : 피의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고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또한 오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와 검찰의 추궁내용을 들어보았으니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과학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양심과 명예를 걸고 나는 결백합니다.

문: 이상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입니다.
문: 더 할말이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하다.

진술자 강기훈
1991. 6. 25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임영근

자료 가2-56 (동아, 91년 6월 25일)

1991年6月25日 火曜日

유서대필 수사 처음부터 난항

무비권 행사... 搜查부진

姜씨 철야조사 이름 住所 등 일부는 自述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유서대필로 알려진 강기훈(55)은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무비권 행사(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기훈은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무비권 행사(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무비권 행사(55)는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강기훈(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기훈은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무비권 행사(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姜씨 신문문에 철직한 무비권 행사 필적감정만으로 公訴유지 의문

무비권 행사(55)는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강기훈(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기훈은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무비권 행사(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무비권 행사(55)는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강기훈(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기훈은 유서대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유서대필을 맡겼던 무비권 행사(55)의 철야조사 이름, 주소 등 일부는 자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91년 6월 26일 ◎

▣자료 가-1-122 (수사기록 730~736)

피의자 신문조서

(제 2 회)

성 명 강 기 훈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6.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보) 전연규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강기훈이고 전회까지의 진술은 사실과 틀림이 없나요

답 : 예, 제가 강기훈이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91. 6. 24 자필로 쓴 진술서에 의하면 5. 1.부터 5. 18까지의 행적중 5. 1, 5. 2, 5. 3, 5. 11, 5. 15 등은 공란(64)으로 되어 있는데 위 날짜의 행적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날들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인가요.

답 : 빈칸으로 남겨 둔 날짜에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 : 그러면 특별한 행사나 기억날 만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인가 확인은 하였을 것이 아닌가요.

답 : 특별한 일을 한 일이 없는 경우에도 날마다 종로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 나가 근무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보통 몇시에 출근하여 몇시에 퇴근하고 전민련 사무실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요.

답 : 보통 아침 10시까지 출근하여 저녁 8시 경에 퇴근할 때도 있고 더 늦거나 못들어갈 때도 있으며

제가 주로 담당하는 일은 전산업무 타이핑 자료정리 등입니다.

문 : 5. 1, 5. 2, 5. 3이 전혀 빈칸으로 남아 있는데 회사에 출근하여 일상업무를 한 것 이외에 전혀 기억나는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5. 11.은 바로 그 전날인 5. 10.에 낮에는 사무실 근처의 카페 봉주르에서 홍성은과 단 둘이 만나 검찰조사에 대비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날 밤에는 김기설 추모예배 후 종로 5가에 있는 도이치호프에서 위 홍성은, 이영미 그리고 김진수 등과 함께 술을 마셨던 바로 다음날인데 전혀 기억나는 일이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5. 15.에도 기억하고 있는 일이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분신자살한 김기설이가 확정적으로 분신하겠다는 의사를 남에게 표시한 것이 5. 5.이고 분신할 것을 작정하고 불안한 행동거지를 보인 것이 5. 4.인데 피의자는 행적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5. 1, 5. 2, 5. 3. 중에 김기설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아니한가요.

답 : 제가 이미 밝힌대로 5. 4. 밤에 전민련 사무실에 들어온 김기설과 인사를 나눈 기억이 있으나 5. 1, 5. 2, 5. 3.에는 그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은 5. 4. 밤 늦게까지 백골단 해체의 날 집회 및 시위가 있어서 전민련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등 분신자살에 관하여 누구와 의논하거나 준비할 틈이 없었을 것인데 5. 4. 저녁식사 때와 5. 5.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5. 8.에 분신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에 비추어 5. 3.경까지 분신을 결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의논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서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밝혀진 피의자가 5. 1, 5. 2, 5. 3. 중에 김기설과 만났을 것이 아닌가요.

답 :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5. 4. 밤에 피의자가 김진수와 함께 홍성은을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날 술 자리에서 김진수가 홍성은에게 김기설의 안부를 묻고

피의자도 홍성은에게 김기설이가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 보라는 뜻의 말을 한 일이 있는지요.

답 : 기억에 없습니다.

문 : 그날 밤 피의자가 홍성은에게 술주정을 하거나 지나친 행동을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술에 취하여 평소답지 않게 성은의 팔을 붙잡고 한잔 더 하러 가자고 한 기억은 있으나 그밖에 술주정을 한 일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가 5. 7. 밤에 홍성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까지 사과를 할 정도는 못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 5. 10. 오후 3시 봉주르 카페에서 홍성은과 만났을 때 피의자는 홍성은에 대하여 말하기를 김기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죽기 1주일전부터 김기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을 한 일은 있으나 그 이유는 김기설이 죽고 난 후에 알고 보니 학력, 경력 등을 속였기 때문이고 그외에 죽기 1주일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말은 한 일이 없을 뿐더러 또한 그 무렵에는 5. 4. 밤에 만난 것 이외에는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문 : 홍성은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가 5. 5. 밤에는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 보라 하며 김기설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말하여 놓고 죽은 후에 도리어 1주일 전부터 사이가 나빴다고 말하였다고 하니 그와 같은 말들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가요.

답 : 저는 5. 5. 이나 5. 10.에 그와 같은 두 가지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물건 중 89. 전민련 수첩, 90. 전민련 수첩이 들어 있는데 피의자 것이 틀림 없는가요.

답 :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민련의 수첩이 아니고 다른 수첩일 것이며 90년도 수첩도 전민련 수첩이 아니라 '일터에서'라는 전노협 수첩을 사용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91.도에는 어떤 수첩을 사용하였는가

요. 답 : 91.에는 전민련의 수첩이 너무 커서 사용하기 불편하였고 또 제가 내근을 주로 하였고 때문에 사무실에서 약속 등을 사무실에 있는 메모판을 이용하였고 따로 약속이나 전화번호 등을 위한 수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 : 전민련 관계자나 운동권 학생 등은 자랑스럽게 전민련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피의자도 91. 초 전민련 수첩을 1권 배부받았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도 1권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제 기억으로는 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중에 전민련 상임집행위원 최규성으로부터 91. 전민련 수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받은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때 최규성에게 수첩이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할 것이지 왜 전민련 수첩이 없다고 대답하였는가요.

답 : 저는 수첩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기에 그저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으면 말하시오.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강 기 훈

1991. 6. 2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전연규

자료 가3-30

검찰은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를 존중하라 (강기훈씨 변호인단의 성명)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강기훈씨의 목비권 행사가 변호인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변호인 접견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어떻게 그러한 폭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놀라움과 아울러 같은 범조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조차 느낀다. 검찰이 진정으로 피의자의 목비권 행사가 부당한 것이며, 변호인들은 목비권 행사를 협의하여서는 안되고, 변호인 접견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시켜줄 수도 있고 안시켜줄 수도 있는 제도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러한 바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법률을 의도적으로 왜곡·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목비권 보장 규정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전에는 빠져 있다는 말인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은 어느 누구도 또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사실을 검찰은 모르고 있던 말인가?

검찰로서는 피의자신문에 앞서 먼저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비권 조지의무를 지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목비권 행사의 뜻을 명백히 밝힌 강기훈씨에게 밤샘조사를 통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강기훈씨 사건은 모든 국민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특별히 주문하면서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사건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검찰의 불법·부당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커다란 흠집을 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1991. 6. 26.

강기훈씨 변호인단
변호사 유현석, 고영구, 홍성우, 황인철, 김창국, 강철선, 장기욱, 조영환, 한기찬, 이상수, 박제승, 박용일, 박연철, 이석태, 조용환, 백승헌, 이종걸

姜씨 자술서 16장서

檢察 緝獲 조작 의심... 감정않기로

【서울 24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검은 강기훈씨(37)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16장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훈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16장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훈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16장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檢察 허위진술강요 姜씨 참고인들 주장

【서울 24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검은 강기훈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16장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훈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16장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훈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16장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자료 가2-57 (등아, 91년 6월 26일)

◎ 91년 6월 27일 ◎

☐자료 가-1-123 (수사기록 737~739)

경장 박기덕
경장 박도용

서울지방검찰청

* 첨부 자료 <생략> (수사기록 739)

수신 송명석 검사

제목 수사보고

☐자료 가-1-124 (수사기록 740~744)

위건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술서

1. 하명사항
서울

본적 경기도
주거 서울시

거주 이종원 당 28세 (李鍾源)
임하여 소재발견시 동행할 것.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종원
직업 길벗출판사 직원 (Tel

2. 수사사항

위 주소지에 임한 바 출입문 시정된 채 부재중으로 위 주소지 빌라 관리인 접견. 이종원 거주 및 소재 등 문의한 바, 이종원은 자기 처와 함께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회사에 출근하는지 두 사람 모두 평소 아침에 나가 저녁 10시경이나 되야 집에 들어온다는 언동으로 관할 대조동 사무소에 임하여 이종원에 대한 거주 및 주민등록등재 여부 확인한 바, 90. 6. 30일자로 동 주소지로 전입되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인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을 동 사무소로부터 발부받은 후 이종원가 부근에 잠복타가 이종원과 처 등이 귀가하여 집에 있는 것을 확인 후 이종원가에 임하여 이종원 및 동인의 처 김경숙 등에게 동행사유 고지 후 이종원이 부모에 연락, 부모 및 처 등도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들 모두 이종원의 보호자로 함께 동행하였음을 수사보고합니다.

1. 강기훈씨를 알게 된 경위

본인이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1985년 7월경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마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 같은 사동에서 생활하면서 강기훈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2. 강기훈씨를 '혁명의 불꽃' 그룹에 가입시킨 과정

1988. 2. 27일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본인의 집으로 강기훈씨가 1988.3월경 전화를 걸어와 출소를 축하한다며 오랜만에 얼굴이나 봤으면 좋다고 하여, 민중의당 중앙당사 부근의 옥호불상 다방에서 며칠 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그동안 지내온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강기훈씨가 민중의 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 본인이 민중의 당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본 뒤, 강기훈씨가 민중의 당 활동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입장인 혁명적 정세에 대해 간단히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인이 강기훈씨에게 다음에 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뒤 본인이

*첨부 : 이종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세대별 "

1991. 6. 27.

경사 김재석

'혁명의 불꽃' 그룹 활동으로 정신없이 바쁜 관계로 연락을 못하다가 약 2-3달이 지난 88년 5, 6월경 옥호불상 다방에서 강기훈씨를 다시 만나, '혁명적 정세', '임시혁명 정부'에 대해 본인이 설명하면서 강기훈씨를 설득하였으나, 강기훈씨는 대체적인 입장은 올바른 것 같으나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더 생각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기훈씨에게 조금더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고민해보라며,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뒤 본인이 강기훈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88년 10, 11월경 연락이 되어 옥호불상 다방에서 만나 강기훈씨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이견이 해소되었지만, 강기훈씨가 아직도 '혁명적 정세, 임시혁명정부'에 대해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여, 본인이 강기훈씨에게 아직 우리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일치점을 보고 있으니 다른 사람과 만나 계속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여 강기훈씨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3. 강기훈씨를 노성철씨에게 소개한 과정

강기훈씨를 만나기로 한 88년 10, 11월경 며칠 전에, 본인이 노성철과 만난 자리에서 강기훈씨의 약력, 현재상태 등에 대해 말해준 뒤, 강기훈씨를 노성철씨가 만나서 계속 토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여 노성철씨의 승락을 받고, 강기훈씨와 노성철씨가 만나는 방법을(두 사람의 가명, 만나는 방법, 시간 장소) 정했습니다.

그 며칠 후 강기훈씨를 만나 이미 정한 방법을 말해준 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1989. 3월경 '혁명의 불꽃' 그룹의 입장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어 탈퇴하였고 그 뒤에 같이 탈퇴한 김경숙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퇴하기 얼마전, 노성철씨가 강기훈씨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여 노성철씨에게 강기훈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이 있고, 본인이 '혁명의 불꽃'을 탈퇴한 뒤에는 강기훈씨와 노성철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0. 10. 27일 '혁명의 불꽃' 그룹 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1991. 5. 25. 가석방으로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진술은 사실대로 자술하였습니다.

1991. 6. 27.
이종원

☐자료 가-1-125 (수사기록 745)

기안용지
(전화 : 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6452

시행일자 1991. 6. 27.

주임검사 윤석만

수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목 필적 동일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10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유서 2매.
2. 전민련에서 김기철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
3. 강기훈 소유 "일터에서 '90" 수첩 1권.
4. 강기훈이 단국대 화학과 재학 당시 사용한 공책 1권.
5. 강기훈 작성 진술서 (1985. 11. 3.자) 1매.
6. 강기훈 작성 진술서 (1985. 11. 18.자) 3매.
7. 강기훈 작성 진술서 (1985. 11. 22.자) 4매.
8. 강기훈 작성 항소이유서 1매.
9. 강기훈 작성 "Two Tac"이라는 제하의 필적 13매.
10. 강기훈 작성 "What is"라는 제하의 필적 9매.

끝.

■자료 가-1-126 (수사기록 746~747)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신상규 1991. 6. 27.
제목 수사보고

1991. 6. 27. 18:00경 피의자 강기훈의 변호인 박재승의 5명이 피의자의 접견을 신청하여 같은 날 18:30경부터 약 30분간 1020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위 변호인 6인의 접견을 실시하였는 바, 변호인이 제출한 접견원을 첨부 보고합니다.
(접견원에는 신청일자가 1991. 6.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접수 및 접견일은 1991. 6. 27.임)

첨 부 : 접견원 1부. 끝.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찰주사보 임 영 근

■자료 가-2-58 (동아, 91년 6월 27일)

접견원

사 건 91형제 46779
피의자 강 기 훈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접견을 신청합니다.

1991. 6. 28.
위 피의자의 변호인
- 변호사 박재승
 - " 장기욱
 - " 박연철
 - " 조영황
 - " 김창국
 - " 백승현

姜基勳씨 후배
3차례 만났다
본인자살한 전민원 사회
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무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부부장 김광환(88)의 유서대로

● 91년 6월 28일 ●

■자료 가-1-127 (수사기록 748)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송명석
제목 수사보고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본 적 : 서울시
주 소 : 경기
이 보 은
만 22세(1968. 9. 18.)
주민등록번호

2. 수사사항
명에 의하여 상기자를 임의동행코저 경기

민교회 입구 길목에서 삼각근구 중 2235경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이해학(이보은의 부)은, 현재 서울교도소에 수감중이나 장모 장례식에 참석코저 교도소에서 일시 귀휴하여 주민교회에서 예배 후 도로에 신도 약 50명과 함께 나와서 우리는 승리하리라는 등 몇곡을 합창한 후 경기 1노 6881호 케피탈(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교도소로 출발하였으나 이보은양은 나타나지 않았고, 91. 6. 28. 06:00경 다시 동소(주민교회 입구)에서 11:00경까지 잠복근무를 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아 소재파악에 계속 수사중임을 보고합니다.

경사 김재섭
경장 박기택

■자료 가-1-128 (수사기록 749~751)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박상도 1991. 6. 28.
제목 수사보고

위건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사항
내사 대상자 인적사항
본 적 서울
주 거 서울
장준호 () 남
만 25년 1966. 4. 9.생
주민등록번호

위 장준호는 부 장기석 당 54년, 모 김정숙 43년의 아들 3형제 중 막내아들로 해화국민학교, 경신중학교,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는 방위소집되어(군번 시내 상계동 동사무소 근무하였으며, 가족들은 현 거주지에서 영세민으로 살고 있고 그의 부모 모두 주거지 인근 공장에서 일하며 큰형인 장분태는(61년생 당30세) 시내 불광동 소재 '테크닉스'라는 중소기업 전자회사에 회사원이고, 둘째인 장준용은(64. 1. 28.생) 수원강남대학 경영학과 졸업 후 현재 성균관대학 경영대학원 1학기 과정 재학중이며 동인의 말에 의하면 장준호는 방위병 제대 이후 집을 나가 약 3년째 한번도 나타나지 않아 집에 가족들도 피섭하게 생각하고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이며 방위병 제대할 때까지 운동권으로 판단할 만한 아무런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에서 찾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알려져 있는 유서대필사건에 대하여도 둘째형인 장준용은 잘 모르고 있는 듯한 태도이고 동인의 의식성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시국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어도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장준호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은밀히 동가 주인에게 장준호의 집 사정과 동인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장준호의 말과 부합되는 말을 들었으므로 수사보고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파견경찰관 경사 이종환

* 약도 <생략> (수사기록 751)

☐자료 가1-129 (수사기록 752~755)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박상도 1991. 6. 28.
제목 수사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주거 서울시 5
무직 장준호 ()
만 25세 ()

2. 수사사항

위 사람은 주거지에서 약 3년전에 무단 기출한 자료서, 소재를 발견코저 위자가 거래하고 있는 혜화동 국민은행지점에 임하여(계좌번호,) 거래상황을 91. 1. 1부터 4. 16.까지 조회한 바, 91. 3. 15.에 180,000원(현금 80,000원, 수표 100,000원권 1매)이 돈암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입금되었던 것을 발견하고 위 국민은행 입근전표에 무통장의퇴용으로 입금의뢰자와 입금자가 장준호로 서명되어 있고, 전화번호 382-2895를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번호를 조회한 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소재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로 가입되어 있어 위 장소에 답사한 바, 본건은 약 40평가량 되는 '기사연 빌딩'으로서, 1층은 새누리신문사, 2,3층은 학생운동본부이고, 4층은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로 전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층 현관 벽에 '근조 박창수 열사'라는 프랭카드가 붙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재야인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건물로 추정되어, 계속 수사중이옵기 보고합니다.

* 첨부 : 무통장 의퇴용 전표 1매
현장약도 1매

서울지검 파견경찰관
경장 진용갑

*전표, 약도 <생략> (수사기록 754~755)

☐자료 가1-13055 (수사기록 756~758)

진술서

1. 이종원 씨와는 87년 마산교도소에서 알게 되었고 87년 7월 8일 가석방되었을 때에도 나오지 못하였는데, 88년 그가 가석방되었을 때 수소문하여 집으로 안부전화를 했고, 3월 초에 민중의 당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그동안 지내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였는데, 견해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을 느꼈다. 3-4개월 간격을 두고 그가 연락을 해왔고 총 3차례 만나서 당시 종원 형이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었고, 나는 그에 응락하였다.

1. 89년 초로 기억되는데, 그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해보라 했고, 약속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아마 신촌에 있는 카페였을 것이다. 내 이름을 상우로 하고 그가 상우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약속장소에 가 있는데 그가 왔다. 키는 180 정도, 경상도 말씨였고, 금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와 1번 정도 만나고 나서 나는 나름대로 내 할일을 찾고 있던 가운데 노운협 실무간사로 들어갔는데, 그 시점에

55) 강기훈의 자술서 중 싸인펜으로 작성한 것임.

도 1회 만났던 것 같다. 주로 정세와 당면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거냐고 묻고 노운협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하자 앞으로 그쪽(노운협)의 사업계획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 같다.

1. 만남이 상시적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89년 여름이 조금 지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나에게 메모지를 준 사람이다. 키가 나보다 조금 크고 검은 테에 나보다 체격조건이 조금 좋았으며, 얼굴이 흰편이었다. 첫만남은 역시 신촌 부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처음 만남부터 그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좀 전망지고 강압적이었다. 이전 사람과는 평범한 정보교환 차원이었는데 그는 보고서와 각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요구들을 했었고, "대회가 있었다. 현정세를 어떻게 보느냐" 등등의 질문을 던진 다음 내가 대답하면 조목조목 반복하는 토론형식을 취했다.

1. 동년 9월경 나의 요구에 의해 그가 대화록과 함께 편지를 주었고 자세한 내용은 편지를 참조하라 했다. 그 이후 1번 정도 더 만났으나, 그가 요구한 것을 나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그는 나에게 대한 연락을 끊었다.

1. 자료와 편지는 집에 보관하다 어느 날 집안에서 찾을 수 없었는데, 아마 어머니나 집 식구들이 다락에 올려놓은 것 같다.

1991. 6. 28.
강기훈

참조...필수 221, 245

진술서

주요진술서

1. 여주인쇄하는 81년 미산교도소에 압제 당한 89년 1월 1일
 전방시찰을 마치고 내지 못하였는데, 89년 2월 1일
 당시에 수감되어 집으로 안부전달을 하고, 3월 초에
 만주령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그동안 지내던 이야기는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는 어느정도는 비슷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개월
 간격으로 두교 연락을 해왔고 총 3차례 면에서
 면이 중형형 하고 있는 일을 같이 우리 중형하는
 제안을 했었고, 나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1. 89년 3월 1일 당시에, 그가 자기가 아내와 다른사람
 과 동거 하다가 있고, 부속방이나 시안을 알려주어.
 내가 산에서 있는 거대함을 것이다. 내 이름을 상근
 하고 그가 상근을 잘못 지리했었다. 내가 부속방소
 에 가있는데 그가 왔다. 그는 180정도, 덩치도 많이

3804-33(2-1)A
84.9.8 승인

252

조서용지 190mm X 268mm
(신분용지 54R/가)

진, 순서대로 되어있다. 그가 180
 내게 반년 남음이 내 불만을 하고 있던 거기에
 대해 심부방으로 돌아보는데, 2 사람에게 1회
 만났던 것 같다. 주로 집마다 당면사제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한 심부방인 30명만 내라
 내가 무엇을 할지라고 묻고 2달만에 일할 예정
 이라고 하라 불어 고작 (50명)의 40명정도는
 불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 같다.

1. 만성이 상사까지 못하고 재직중인 89년
 이듬해 3월이나 이후 사람을 소개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메모지를 준 것이다. 그가 내보다
 30정도 젊은데에 내보다 체격은 더 큰 듯하고,
 성이 흥건이었다. 첫 만남을 영시 산후우리가
 것과 같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전에 만났던
 4살보다 큰 것방으로 강박적이다. 이런 사람은
 텅텅한 정당한 차원이므로써 그는 불어다
 각 지립을 하다가는 불어다 외출을 했었고,
 "대리가 안고다. 현정세를 어떻게 보느냐" 등등의
 질문을 던진 다음 내가 대답하면 고작 20명 불어

3804-33(2-1)A
84.9.8 승인

조서용지 190mm X 268mm
(신분용지 54R/가)
등사 252

104-33(2-1)A
1.9.8

1. 총인 9명 내의 2개 아래 2가 내외국나
함께 면담을 주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하러 했다. 그 이후 1번 정도 더 만났으나,
그 외의 것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후
같은 내에 대한 면담을 관했다.

1. 자형과 형남 집에 보냈다가 어느날 집안에서
찾을 수 없었는지, 아아 너네나 걸수들이
다들 물어보는 것 같다.

1991. 6. 8

강 기훈

동작물서임기

자료 가-2-59 (동아, 91년 6월 28일)

"유서 김씨자필 입증"

文件 검찰에 내겠다

강씨, 피어임명 제철어권

강기훈 씨가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 검찰에 내겠다. 강씨는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이 검찰에 제출되면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기훈 씨가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 검찰에 내겠다. 강씨는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이 검찰에 제출되면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유서 김씨자필 입증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91년 6월 29일

자료 가-1-131 (수사기록 759)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윤석만
제목 수사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대상자 인적사항
본적 서울시

주소 서울

(윤화약국)

무직 최재인(전화:

생년월일 1965년 2월 3일

- 2010633

2. 수사사항

위 최재인을 발견 임의동행코저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중 발견하여
외국어대학교 정문전방 약100여미터
까지 미행다가 접견 임의동행코저
하였으나 임의동행에 극구불응하면
서 변호인단측의 출두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출두하겠다고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고 서로 시비하고 있는데 위 최재인의 부친
이 나타나 자기의 딸을 임의동행시키지 못하겠다고
하여 임의동행치 못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제 3 회)

1991. 6. 29.

서울지검 강력부 1006호실

경장 김도영

성명 강기훈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6.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는 검찰

Table with 2 columns: Question (문) and Answer (답). Contains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suspect's statements regarding the case.

주사(보) 임영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
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
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전화 진술한 것은 사실대로 인가요

답 : 네,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5. 8. 김기설 사망 전부터 김기설의
글씨를 잘 알고 있는가요

답 : 그 전부터 김기설의 글씨를 잘 알고 있지는 못
하나 이번에 유서대필 사건이 보도된 후 전민련에서
김기설 글씨를 수집하였는데 그것을 보니 검찰에서
김기설의 글씨라고 주장하는 정자체 글씨도 있고, 또
속필 내지는 흘림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의 글씨와
같은 것도 있고 하여서 비로서 확실히 김기설의 글씨
를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김기설의 글씨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
다섯 가지는 검찰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고 김기설의
글씨가 틀림없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한 사람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 글
씨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정자체와 흘림체의 두 가지 글씨가 같은
무렵에 사용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때 검사는 증제3-1호(책표지), 56) 증제2-1호(주민등
록증분실신고서), 57) 증제10-1호(이력서), 58) 증제13-
1호(카드와 봉투), 59) 증제13-2호(편지와 봉투) 60) 등
을 제시하고 열람케 한 후

문 : 이것이 피의자가 말하는 김기설의 정자체 글
씨인가요

답 : 네, 지금 보여 준 다섯 종류의 글씨는 김기설
의 정자체 글씨가 틀림없습니다.

문 : 그러면 위 김기설의 글씨와 전혀 다른 글씨로
보이는 유서도 김기설의 글씨라는 말인가요

이때 증제 1-6호(유서 2매)를 제시하고 열람케 한 바

답 : 그것은 김기설의 글씨인데 정자체가 아니고
흘림체입니다.

56) 총자료집 I 책 74쪽 참조.

문 : 지금 보여 준 것은 김기설의 유서로서 특히
그중 1매는 부모에게 보내는 유서인데 그것이 흘림체
로 쓰여졌다는 것은 글씨 모양상으로 맞지 않고 또
부모에 대한 도리에도 어긋나지 않는가요

답 : (목록부담)

문 : 피의자는 피의자가 말하는 소위 김기설의 흘
림체 글씨들을 보면 알아볼 수 있는가요

답 : 네, 알 수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이 서류들도 유서의 글씨와 비슷한 것
으로 보이는데 김기설이 쓴 것인가요

이때 증제5-1호(업무일지), 61) 증제7-2호(홍성은 제출
메모지), 62) 증제11-1호(전민련 제출 전민련 수첩) 63)
등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바,

답 : 지금 보여준 세 가지 글씨는 일견 보기에 비
슷하고 유서와 마찬가지로 김기설의 흘림체 글씨로
생각하나 두번째 보여 준 메모지는 김기설의 글씨인
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시 증제1-6호(유서), 증제3-1호, 2-1호, 10-1
호, 13-1호, 13-2호(피의자가 주장하는 정자체 글씨)
와 5-1호, 7-2호, 11-1호(유서와 비슷한 글씨) 등을
모두 차례대로 책상 위에 진열하고 열람하게 한 후,

문 : 위 유서와 다른 다섯 가지 그룹과 또 나머지
세 가지 그룹의 글씨가 모두 한 사람인 김기설의 글
씨로 보인다는 말인가요

답 : 네, 제가 보기에는 모두 김기설의 글씨로서 다
만 정자체와 흘림체의 차이일 뿐입니다.

문 : 소위 정자체라는 글씨들은 잘 쓰는 글씨가 못
되고 오히려 피의자가 흘림체라고 주장하는 글씨들은
매우 달필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하여 피의
자는 그것들이 흘림체 글씨라고 주장하는가요

답 : 흘림체라거나 또는 속필체라거나 표현상의 차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두 가지 글씨는
모두 김기설의 글씨라고 생각하며 정자체라고 분류한

57) 총자료집 I 책 44쪽 참조.

58) 총자료집 I 책 216쪽 참조.

59) 총자료집 I 책 230쪽 참조.

60) 총자료집 I 책 232쪽 참조.

61) 총자료집 I 책 81쪽 참조.

62)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63) 총자료집 I 책 716쪽 참조.

글씨도 저는 그것이 잘 쓴 글씨이지 못쓰는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증제11-1호(전민련 수첩) 속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부 부분 3매의 글씨는 위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정자체 글씨인가요, 흘림체 글씨인가요.

답 : 그것은 흘림체 글씨 즉 유서체의 글씨입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는 전민련 수첩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3매(분리된 부분)의 글씨가 흘림체라는 말인가요.

답 : 네, 흘림체 즉 유서체입니다.

문 : 전화번호를 기재한 부분의 사람 이름과 숫자들을 보면 이것들은 누가 보아도 또박또박 쓴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피의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흘림체 글씨라고 주장하는가요.

답 : 정자체 또는 흘림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같은 글씨끼리 모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지 꼭 흘림체라고 해서 흘림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은 정자체와 흘림체의 차이는 두 가지 글씨를 사용하였다는 뜻이 아니고 정성드러 쓴 경우이건 빨리 빨리 흘려서 쓴 경우이건 관계없이 애초부터 두 가지의 글씨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답 : 네, 김기설은 두 가지 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은 유서에 있는 글씨체와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에 나타난 글씨체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글씨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두 가지 글씨체의 정자체와 흘림체 또는 속필체까지 분류하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글씨를 사용하였다는 뜻인가요.

답 : 그렇게 분류를 하여 네 가지씩 글씨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유서와 같은 글씨와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와 같은 두 가지 글씨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나 전민련 측에서는 이 사건이 지상에 보도된 이후 계속하여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극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글씨체가 두가지라고 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김기설의 다섯 가지 글씨도 김기설의 글씨라고 인정하고 있으

니 최소한 검찰이 김기설의 글씨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닌가요.

답 : 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가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라거나 검찰이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는데도 저의 글씨라고 하니 그 필적감정을 믿을 수 없고 또 김기설의 흘림체 글씨가 분명한 업무일지와 김기설의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때 증제5-1호 업무일지(64)를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문 : 피의자가 보는 바와 같이 업무일지 첫장은 3. 20. 사업내용에 대하여 식줄이 기재된 후 나머지 4분의 3 가량이 찢어져 없어졌고 사업내용을 기재한 후 자를 대고 반듯하게 줄이 그어져 있는 반면 두번째 장에는 3. 23부터 4. 14까지 일곱 개의 사업내용이 속필로 그리고 같은 굵기의 연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칸 사이는 연필로 자를 대지 않고 거칠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3. 20.부터 4. 14까지 날마다 작성된 일지로 보이는데요, 아니면 3. 20. 이후 기재된 부분을 찢어버리고 3. 23.부터 4. 14.까지 그리고 세제장의 4. 15.까지를 한꺼번에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가요.

답 :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 한번에 또는 두 번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일매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업무일지는 한꺼번에 급하게 작성하고 또 그 글씨도 김기설의 글씨(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글씨체)도 아닌 바로 유서를 대필한 글씨 그리고 피의자 자신의 글씨로 보이며, 감정 결과도 업무일지의 글씨는 유서의 글씨와 같고 피의자의 자술서(1985. 11.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점거사건 기록 증제8-1호)의 글씨와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도 업무일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요.

답 : 저는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으며

64) 총자료집 I 책 81쪽 참조.
65) 총자료집 I 책 109쪽 참조.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김기설은 두 가지의 글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업무일지 글씨는 틀림없는 김기설의 글씨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증제11-1호(전민련 수첩)를 제시하고 자세히 열람하게 한 후,

문 : 이 수첩의 분리되어 꽂혀 있는 전화번호 기재 부분 3매의 글씨와 수첩 앞부분 달력부분 중 4. 8.부터 5. 12.까지 기재된 부분의 글씨는 누구의 글씨이며 또 두 가지가 같은 글씨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유서의 글씨와 같은 것으로 보아 김기설의 글씨이며 달력부분과 전화번호 기재부분도 같은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문 : 이 수첩은 1991. 5. 8. 12:00쯤 연세대학교에서 피의자의 여자친구인 이영미와 남자친구 김진수가 김기설의 수첩을 가지고 있던 홍성으로부터 넘겨받아 전민련 선전부장 원순용에게 넘겨갔는데 전민련측에서는 5. 8. 이후 검찰이 김기설의 필적이 있으면 제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는데도 5. 11.에야 위 업무일지만을 제출하고 5. 8. 이후 계속 가지고 있던 김기설의 수첩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5. 17. 비로소 수첩의 존재와 소재를 파악하게 된 검찰이 수첩의 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5. 20. 오후 6시경 김기설의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첩을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이유에 대하여 저는 잘 모르겠으나 5. 11. 업무일지를 제출한 후 필적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져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신문보도를 통하여 5. 18. 또는 19. 경에야 수첩을 찾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참고인 홍성은을 비롯한 5. 8.까지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수첩의 글씨들은 사용한 필기도구나 색깔이 본래 김기설의 것과 달라 수첩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저는 그런 점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고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이므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 이 수첩의 편철순서를 살펴보니 달력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가맹단체가 인쇄되어 있고 그 다음 전민련규약이 인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있고 메모를 할 수 있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모눈종이 부분이 편철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부를 기재하는 첫번째 면의 앞부분은 전민련 규약 제4장과 5장이 인쇄된 페이지인데 지금 제출된 수첩을 보면 바로 규약이 인쇄되고 그 뒷면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첫번째 면 부분의 1매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 전화번호를 기재한 부분 3매만 꽂혀 있는데 왜 첫번째 한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전화번호 3매의 절취선과 수첩의 해당부분의 절취되고 남아 있는 쪼가리의 절취부분을 관찰하여 보면 두가지의 절취선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부 3매는 제출된 수첩에서 뜯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첩의 해당부분을 분리하였다가 이곳에 꽂아 놓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의자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지금 설명을 듣고 전민련의 수첩과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는 실제로 절취선의 톱날부분이 서로 맞지도 않고 오히려 겹쳐지므로 본래 수첩에 있던 용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 그렇다면 이 수첩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새로 꽂혀진 전화번호 부분의 글씨와 수첩 앞부분의 글씨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김기설의 글씨는 유서의 글씨와 다른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가요.

답 :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씨는 분명히 유서의 글씨와 같고 따라서 김기설의 수첩이 틀림없습니다.

문 : 육안으로 보아도 그렇고 필적감정결과로도 이 수첩의 글씨는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 유서 및 피의자의 자술서(증제 8-1호)의 글씨와 동일하니 피의자가 유서를 대필하여 놓고 그것이 탄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첩도 김기설의 것을 보고 피의자의 글씨로 고쳐 써서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조작해 놓은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위 수첩이 5. 8. 이후 누구의 손에 보관되어 있다가 누가 제출했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5. 8 수첩을 받은 원순웅이 최재인에게, 최재인은 이보은에게 주어 연세대 강경대사건 대책위 사무실의 서류함 속에 들어 있다
 가 5. 18경 강경대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날 낮에 전민련 사무실로 서류함이 옮겨졌다고 들었으며 5. 19. 밤에 누군가 전민련 실무자가 찾아내어 밤 10시쯤 명동성당으로 가져온 것을 다음날인 5. 20.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전민련 상집위원 최규성이 검찰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문 : 위 기간 중 피의자는 어디에 있었으며 전민련 측이 김기설의 수첩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이 수첩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요.

답 : 저는 강경대 사망사건 이후 계속하여 내근차로서 종로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5. 8 오후에 김기설군 사망소식이 전해져 분향을 하기 위하여 연세대 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고 그 이외에는 계속하여 전민련 사무실에 있다가 5. 16. 저녁 저의 집이 압수수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실무자들이 나가 있는 연세대 학교의 대책위 사무실로 가서 16. 밤과 17. 밤을 그곳에서 지내고 18. 09:00경 강경대군 운구행렬을 따라 장례식에 참여한 후 그날 밤 9시경 명동성당 농성장에 들어가 다른 사람과 합류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수첩을 보거나 만진 적이 없으며 위에 말한 바와 같이 19. 밤 10시 이후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명동성당으로 가져온 한번 보았습니다.

문 : 5. 18 강경대군 장례식이 있었을 때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의 대책위 사무실에 있던 전민련의 서류나 여러가지 비품 등은 언제 누가 종로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로 운반하였는가요.

답 : 5. 18 오전에 3층에 있던 물건들을 저를 비롯하여 여러 실무자와 학생들이 함께 아래층 밖으로 옮겨서 누군가가 차로 전민련 사무실까지 운반하였을 터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가 종로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만 계속하여 머물고 있던 것이 아니라 5. 16. 밤부터 5. 18. 아침까지 연세대 학생회관 3층 대책위 사무실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제가 연세대에 가서 학생회관 3층에 있는 휴식공간 "푸른샘" 씨클룸 등에 있었고 또 대책위 사

무실에도 드나든 사실은 있으나 대책위 사무실에 계속 머문 것은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5. 16. 부터 5. 18. 사이에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머물면서 대책위 사무실 서류함 속에 있는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을 꺼내어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된 전민련 수첩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김기설이 죽기 전에 김기설이가 잡지나 신문 등에 무슨 사건에 관하여 평론을 쓴다거나 그밖에 편지, 수필 등을 쓴 것을 본일이 있는가요.

답 : 죽기 전에 본 사실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죽은 후에만 보았다는 말인가요.

답 : 김기설이 사망 후 필적문제가 대두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여 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때 홍성은이 제출한 메모지(중제7-2호)⁶⁶)를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문 : 그 메모지의 글씨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는가요.

답 : 글씨는 수첩과 유서의 글씨와 같은 김기설의 글씨이나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 위 메모는 1991. 5. 13.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김기설이 쓴 것이라고 제출하였다가 그 후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 정정한 바 있는데 바로 피의자가 쓴 것을 김기설이가 자기가 쓴 것처럼 여자친구 홍성은에게 준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쓴 것이 아니며 김기설의 글씨가 분명합니다.

문 : 피의자가 김기설이 사망한 후 홍성은을 만났을 때 홍성은에게 검찰조사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김기설부터 받은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검찰에 제출하도록 홍성은에게 써 준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피의자 자신의 글씨와 유서, 업무일지, 전민련 수첩의 글씨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 제 글씨가 아닙니다.

이때 기록 제585정 이하⁶⁷)에 편철된 1991. 5. 29. 자

66)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를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문 : 감정서의 감정결론은 물론 첨부된 사진 중 유서와 강기훈의 진술서 노트, 수첩(중제11-1호) 등의 비교 사진 중 "면", "것", "획", "침", "책", "생", "화", "선", "준", "위" 등을 대조해보면 위 확대사진을 통하여 유서와 수첩의 글씨들을 피의자의 글씨인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가요.

답 :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제 글씨가 아니며 다른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 피의자는 1991. 5. 27. 저녁 6시쯤 피의자의 변호인 김창국 등 5명과 당청 1020호 검사실에서 접견을 한 일이 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때 피의자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검사가 보여준 필적감정 사진을 보니 "저의 글씨와 유서 등의 글씨가 똑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런데도 피의자는 피의자가 유서를 대필하지 아니하였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가요.

답 : 몇 가지 글씨가 똑같아 보이지만 제가 유서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91. 5. 7. 밤에 홍성은으로부터 전화가 받았을 때 홍성은이가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연락하여 달라면서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는데도 무슨 전화번호를 들은 기억은 나지만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또 왜 그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답 : 네, 지난해 조사받을 때 그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문 : 홍성은이가 5. 7. 밤에 그와 같은 전화를 할 때는 늦은 밤이었고 또 홍성은이가 피의자의 집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그날 밤 김기설의 수첩 속에서 이현우(피의자 강기훈의 이명)의 전화번호를 보고 처음으로 전화하였다는데, 더우기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즉 김기설이 죽으면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달라는 뜻인데도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67) 총자료집 I 책 313쪽 이하 참조.

답 : 저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지난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때 5. 8. 아침 어머니가 깨워 또 누가 분신했다는 말을 듣고 티비 뉴스를 보니 기설이가 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영미가 전화를 걸어 "기설씨가 분신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답 : 뉴스를 본 것이 먼저이고 영미가 전화한 것이 나중입니다.

문 : 지난해 진술에는 전후를 모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확실치는 않으나 어머니가 깨운 것이 먼저입니다.

문 : 그런데 왜 이영미는 자신이 피의자에게 전화했을 때 피의자가 모르고 있어서 분신소식을 알려주었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예상외로 냉담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 뉴스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5. 8. 분신사건 이전에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여 주고 그의 죽음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5. 7. 밤에도 홍성은의 전화 연락부탁에 대하여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 사실이라고 부인하고 또 이영미가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듣고 놀라서 전화를 하여주었을 때도 피의자는 별 반응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나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강기훈

1991. 6. 2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임영근

자료 가-2-60 (동아, 91년 6월 30일)



42일동안 明洞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국민회의」 彌鍾業사무처장 (오른쪽) 李東珍 대변인 (왼쪽) 등 4명이 29일오후 성당문화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서울중앙경찰청에서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수감을 친체 했다.

明洞성당 長期농성막내려

42일만에 4명 자진출두 구속收監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42일 동안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국민회의」 彌鍾業 사무처장(오른쪽)과 대변인 李東珍(왼쪽) 등 4명이 29일 오후 성당문화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서울중앙경찰청에서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수감을 친체 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충돌없이 끝난 '농성42일'

「明洞聖堂 사태」平和해결까지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42일 동안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국민회의」 彌鍾業 사무처장(오른쪽)과 대변인 李東珍(왼쪽) 등 4명이 29일 오후 성당문화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서울중앙경찰청에서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수감을 친체 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國民會議 오가며 各계중재 평신도입력 公權力자제도 구분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42일 동안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국민회의」 彌鍾業 사무처장(오른쪽)과 대변인 李東珍(왼쪽) 등 4명이 29일 오후 성당문화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서울중앙경찰청에서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수감을 친체 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투입 자체할 수 밖
에 다른 상황으로 유동하
리 예상된다.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42일 동안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국민회의」 彌鍾業 사무처장(오른쪽)과 대변인 李東珍(왼쪽) 등 4명이 29일 오후 성당문화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서울중앙경찰청에서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수감을 친체 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42일 동안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국민회의」 彌鍾業 사무처장(오른쪽)과 대변인 李東珍(왼쪽) 등 4명이 29일 오후 성당문화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서울중앙경찰청에서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수감을 친체 했다.

彌鍾業 사무처장은 "국민회의는 42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4명 중 3명이 자진출두했다. 남은 1명은 아직 농성 중이다"고 말했다.

91년 7월 1일

자료 가-1-133 (수사기록 777~782)

피의자 신문조서 (제 4 회)

성명 강기훈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는 검찰조사(보)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전화 진술한 것은 사실인가요

답 :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김기설의 유서와 김기설이 썼다는 책표지,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편지들과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수첩 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때 김기설의 유서(증제1-6호), 68) 책표지(증제3-1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증제2-1호), 이력서(증제10-1호), 카드와 봉투(증제13-1호), 편지와 봉투(증제13-2호), 등을 제시하고 열람케 하고, 계속하여 증제5-1호(업무일지), 증제11-1호(전민련 수첩), 증제7-2호(홍성은 제출 메모) 등을 제시하여 자세히 열람케 한 후,

문 : 피의자는 다시금 위 증거들을 특히 수첩의 상태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의 절취선 등을 살펴봐 있는데 우선 첫째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본래

68) 총자료집 I책 중 유서는 27쪽, 책표지는 74쪽, 분실신고서 44쪽, 이력서는 216쪽, 카드와 봉투는 230쪽, 편지와 봉투는 232쪽, 업무일지는 81쪽, 홍성은 제출 메모는 105쪽을 각각 참조.

Table with 2 columns: Question (문) and Answer (답). Contains details of the interview, including the date (1991. 7. 1), location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mes of the prosecutor (Shin Sang-gyu) and the witness (Shin In-seop).

4매이었는데 제일 첫번째 1매가 없고 그 다음의 3매만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요

답 : 네, 그것은 제가 살펴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 : 그 3매의 절취선 부분과 수첩의 해당부분에 남아 있는 조각기가 그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가요

답 : 네, 육안으로 보아도 그 사실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그곳에 꽂혀 있는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는 본 수첩의 해당 부분에서 분리되었던 것이 아니고 똑같은 다른 전민련 수첩에서 찢어다가 끼어 놓

은 것이 아닌가요

답 : 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이 수첩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는데 조작된 수첩에 쓰여 있는 글씨는 죽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닐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요

답 : 그래도 전 수첩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문 : 만약에 이 수첩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될 일이지 피의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수첩의 절취선이 맞지 아니하는 등 조작되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는가요

답 :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수첩의 이상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저도 의문을 품고 있으나 그 수첩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수첩이 조작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그 글씨는 죽은 김기설의 글씨일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수첩의 글씨와 같은 업무일지와 유서의 글씨는 마찬가지로 김기설의 글씨가 아님이 명백하지 아니한가요

답 : 그래도 저는 수첩, 업무일지,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전민련이 제출한 전민련 사회국의 업무일지(증제5-1호)를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후,

문 : 이 업무일지의 글씨는 수첩과 유서의 글씨와 같은가요

답 : 세 가지 글씨는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 : 위 업무일지는 1991. 5. 8 검찰에서 전민련의 인권위원장 서준식에게 김기설의 글씨가 있으면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5. 11. 점심 때 김기설의 사체에 대한 변사처리(유족에게 인도 지휘)를 하면서 서준식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인데, 본래 전민련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김기설의 글씨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고, 또 업무일지를 가져다가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당시 즉 글씨의 제출을 요구받은 5. 8 저녁부터 업무일지를 제출한 5. 11. 낮까지 사이

에 종로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고 있었지요

답 : 네, 5. 8 오후에 분향을 하기 위하여 연세대에 잠깐 다녀온 것 이외에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5. 9, 10, 혹은 11. 오전에 누가 전민련 사무실에서 그 업무일지를 꺼내었는지 또 그곳에 김기설의 글씨 대신 유서와 같은 글씨로 적어 넣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그 업무일지를 연세대로 가져간 사람은 전민련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던 김현수나 김형민 둘 중의 한 사람일터인데 그 업무일지가 새로 작성되었는지도 누구의 글씨인지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문 : 피의자는 업무일지를 새로 작성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업무일지의 글씨가 누구의 글씨인지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그 글씨가 죽은 김기설의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평소에 김기설이가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제가 김기설이가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을 본 사실은 없으며, 그가 죽은 후 다른 실무자로부터 평소 김기설이가 쓰던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첩의 글씨와 유서 및 업무일지의 글씨가 모두 김기설의 글씨라고 주장하니 결국 김기설의 글씨는 두 가지이고 수첩의 글씨도 김기설의 글씨이고 조작할 필요성도 없고, 따라서 수첩은 전민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검찰이 조작하였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피의자는 이 수첩을 검찰이 조작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검찰에서 수첩을 조작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 : 그러면 누가 조작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중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

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하다.

진술자 강기훈
1991. 7.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자료 가-1-134 (수사기록 783~784)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남기춘 1991. 7. 1.
제목 수사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
합니다.

1. 인적사항
본적 경기도
주거 서울
성명 임무영

2. 수사사항
상기자를 검거코저 부 임승준(당 57세)가 경영하는
복덕방에 임하여 부 임
승준을 상대로 임무영의 소재에 대하여 수사한 바 임
무영은 일주일에 1일 정도 집에 들어오며 전민련 사
무실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임무영은 특별
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에서 부모
와 같이 살고 있으며 임무영의 소재에 대하여 파악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보고합니다. 끝.

1991. 7. 1.
위 보고자 경장 한형섭
경장 이병상

☐자료 가-1-135 (수사기록 785~803)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91. 7. 1.
참조 담당검사
제목 수사보고

위진 임근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
고합니다.

1. 인적사항
본적 : 강원도
주거 : 서울

무직 임근재 (任根宰)
만 27세 ()

2. 수사사항
가. 주거 : 경기도

농업 임종호 (任鍾鎬)
만 52세

임승재에 대하여 호적을 열람코저 본적지에 출장수
사에 임한 바 큰아버지 임종호가 위 주거지에 거주하
는 것이 컴퓨터 조회 결과 확인되어 주거지에 임하여
동인을 면접 임근재에 대하여 수사한 바 90. 추석때
부모와 같이 한번 다녀간 후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으며 가족이 부모 제사 때
도 오지 않고 있다고 진술함으로 동인 등 가족에게
소식이 알려지는 대로 지수토록 계도하였으며,

나. 고모 임정순, 임정열 수사

큰아버지 임종호를 면접한 바 고모 2명이 있는데
임정순은 같은 리 660번지에 거주하며 아들 남궁평과
같이 생활하며 동 아들은 포천군 웅천면 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주거지에 임하
여 면접 수사한 바 작년 추석때 한번 보고 현재까지
보지 못하였으며 임근재의 친 누이 임선옥이 금년도
결혼식을 하였던 데도 오지 않아 소재를 모르고 있다
고 하고 큰고모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804번지 거주

임정열을 면접 수사한 바 3년전에 임근재의 부모만
다녀갔으며 근재는 약 10년전에 한번 왔다가는 현재
까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으로 연락이 닿는대로 가족이 지수토록 하게 계도하
였으며,

다. 누이 임선옥 수사
주거 : 인천직할시

()
요꼬기술자 임선옥 (任善玉)
만 28세 ()

상기자의 집에 은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주거지
에 임한 바 가족이 전부 출타하고 없어 잠복근무에
당하였으나 밤 10시가 되어도 귀가치 않으므로 동 집

주인 강운형 당 50세를 상대로 탐문수사한 바 남동생
이 대학에 다닌다는 말은 들었으나 한번도 집에 다녀
간 사실이 없으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 9만원씩에 세
를 주고 있으며 남편은(김시찬 당 35세) 동우교통 소
속 택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동 임선옥은 동네 요꼬짜
는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며 가족이 다녀간 사실이 없
다고 진술하여 계속 잠복근무에 당하였으나 면접치
못하여 계속 수사중이옵기 보고합니다.

첨부 : 호적 등본 2부, 제적부 1부, 주민등록 등본 2부

경장 김종남
경장 이종택

* 첨부자료 <생략> (수사기록 788~803)

◎ 91년 7월 2일 ◎

☐자료 가-2-61-1 (동아, 91년 7월 2일)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
제 2-61-1호 수사보고
상기자를 검거코저 부 임승준(당 57세)가 경영하는
복덕방에 임하여 부 임승준을 상대로 임무영의
소재에 대하여 수사한 바 임무영은 일주일에 1일
정도 집에 들어오며 전민련 사무실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임무영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은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며 임무영의 소재에 대하여 파악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보고합니다. 끝.

■자료 가-3-31

강기훈씨사건 참고인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불법수사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최근 강기훈씨의 여자친구인 이영미씨에 대한 치안본부의 강제연행과 불법수사, 전민련 조동위 부장인 이보은씨에 대한 강제연행, 참고인들에 대한 수배조치 등 수사당국의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 동의하에 임의동행으로 6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명백한 강제연행과 6시간을 넘긴 불법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영미씨의 경우 압수해간 지 50여일 넘은 복사물을 뒤늦게 문제삼아 본 사건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치안본부로 연행하여 조사했다는 것은 여자친구인 이영미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강기훈씨에 압력을 가해 사건수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작해내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주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홍성은양의 경우 96시간에 걸친 불법수사 이후 현재까지 두달이 가깝도록 검찰에 의해 사실상 불법감금된 상태에 있으며, 앞서의 이영미씨는 강기훈씨의 면회를 위해 검찰청에 갔다가 검찰수사관에 의해 머리카락을 잡힌 채 강제연행된 바 있으며, 김기설씨 필체를 증명해줄 유력한 증인인 승의여전 학생 이보령 등 4인에 대해서도 16시간에 걸친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 이외에도 검찰은 강기훈씨의 단국대 동문들에 대한 불법적인 가택수색, 참고인 가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연행과 불법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은 또다시 참고인 14명에 대한 불법적인 수배조치를 행하였다.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모든 행위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사건을 조작하려는 증거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무총리가 김수환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고, 검찰총장은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수사를 약속한 바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비인간적인 강제연행과 불법수사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수배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유서대필 및 배후조작 음모를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1년 7월 2일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 91년 7월 3일 ◎

■자료 가-1-136 (수사기록 804~816)

자 술 서

본 적 경기도
주소 상 동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이 보 은

1. 김기설, 임근재, 장준호 등과의 관계

김기설 선배를 처음 본 것은 성남에서 89년도 경에 우리집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성남 민청년 사무실 앞을 지나면서였다.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고 이름은 당시 민청년 회원이던 이효경(女 29세 성남 태평2동 소재 세화속셈학원 강사) 통해 알았다.

올해 4월말 본인은 구속자 가족모임문제로 전민련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4월 말부터는 상근자 일을 하기로 했다. 전민련 사무실에서 근무한 3-4일 동안에 김기설 선배가 전민련에서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다른 선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한두 차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기설 선배는 사회국 소속이라 외근이 많아서인지 사무실 비우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함께 있던 기억은 거의 없다.

강기훈 선배 역시 전민련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당시 전민련 총무국에서 컴퓨터 업무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전민련 사무실에 있던 기간 중에 강 선배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번 한 이외의 대화나 접촉은 없었다.

임근재씨를 처음 만난 것은 본인의 아버지가 구속된 것에 항의하는 전민련 농성에 참여한 90년 11월 30일 일이다. 본인은 당시 임근재씨를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라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후에 연대에서 인사를 나누며 임근재씨가 본인의 동생인 이보라의 학교 선배라는 사실과, 11월 30일 만난 적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

본인은 강경대군 타살사건이 나서 이틀이 지난 4월 28일경 연세대 범국민대책회의총무국에서 전민련 파

견 상근자로 일하면서 연대에 자주 오던 장준호, 임근재씨 등을 알게 되었다. 상황실에서 상근자를 하던 터라 오가는 사람들의 연락사항 등을 접수하기도 하고 전화도 담당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만나면 사무적인 대화내지는 잡담 등을 했고 두 사람이 전청대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사실 외에 별다른 이치는 없었다.

연대 총무국에 있으면서 투기국에 소속되어 있던 김기설 선배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김기설 선배는 연대에 파견되긴 했지만 반 상근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연대에 있지는 않았고 만나서는 서로가 성남에서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친숙해질 수 있었다.

임근재, 장준호씨는 연대에 있던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명동성당으로 이전한 후에 명동성당에서 함께 있었으며, 강기훈 선배는 5월 16일부터 연대에 와 있었으며 이때에는 본인이 총무국 업무로 경황이 없던 터라 거의 접촉하지 못했으며 5월 19일 밤 명동성당에 온 이후에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었다.

1. 김기설 본선전 김기설과 만난 사실과 당시 내용

김기설 선배에 관한 이야기는 5월 7일 9시30분 - 10시경 범대위에 찾아온 이지혜씨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당시 이양은 전민련 관계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출입구로 나가던 본인이 이양을 만나게 됐다. 이양은 김기설 선배가 5월 5일 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본선 결심을 밝혔다고 전하고 오늘 저녁 약속을 했는데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3시간 기다리다가 전민련을 통해 기설 선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찾아왔다고 했다. 본인은 곧 범국민대책회의 부대변인인 전민련 사회부 임무영 부장을 찾아 이양의 이야기를 듣도록 했다. 이양이 돌아간 후 임무영 선배와 본인은 김기설 선배를 우선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 방을 쓴다는 장준호, 임근재씨를 수소문하고 본인이 성남에 김기설 선배와 관계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설 선배를 찾아보고자 노력했다. 김기설 선배의 성민청 동료로부터 김 선배의 집과 누나집, 친구 한송흠 등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통화 시도를 했으나 어느

곳과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밤 10시30분 정도에 임근재와 연락이 되어 자취방으로 김 선배를 찾으러 보냈고 장준호씨는 홍성은양을 찾아보기 위해 우선 홍양의 친구인 나라사랑청년회원을 만나러 갔다.

이후 연락을 기다리며 총무국 업무를 보고 있던 중 11시 40분경 임근재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임씨는 기설 선배를 자취방에서 만났고 지금 북가좌동의 포장마차에 있다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자친구를 부르겠다고 했으니 본인이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세한 위치를 전해들은 후 임무영 선배와 상의한 결과 본인이 가기로 하고 기설 선배와 꼭 함께 있다가 연대로 들어오든지 다른 사람을 더 부르든지 하라는 부탁을 받고 연대로 나와서 북가좌동으로 갔다.

포장마차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기설 선배와 임근재씨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본인을 보자 기설 선배는 근재 여자친구라더니 왜 네가 왔느냐면서 의아해 했다. 도착 직후 본인은 포장마차 앞의 공중전화에서 임무영 선배에게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걸었다.

기설 선배와 임근재씨와 함께 주로 한 이야기는 전민련에 온지 얼마 안되어 본인이 전민련에 와서 느낀 점 등을 이야기했고 기설 선배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전민련과 전민련 사람들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 중에 김선택 차장과 서준식 위원장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또한 성남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의 근황 등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김기설 선배는 최근에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고 평소 애가깝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도 했고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선배는 전민련을 그만둘 생각이니 자기 대신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절대 전민련을 떠나면 안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포장마차에서 2시반이나 3시경을 넘어서 임근재씨의 제안에 따라 명륜동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본인은 연대로 전화를 걸어 임무영 선배에게 상황을 알리고 명륜동으로 이동할 것임을 밝힌다. 김 선배는 당시 트레이닝복 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옷을 갈아 입고 가고 싶으면서 자취방에 거쳐 가자고 해서 우리 셋은 포장마차에서 나와 천

천히 노래를 부르며 걸어서 북가좌동 자취방에 갔었다. 자취방은 연립주택 4층 내지 5층이었는데 임근재씨와 본인은 방문 밖에 있고 기설 선배만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 입었다. 양복 상하위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본인이 웬 양복이야고 묻자 빨래를 못해 옷이 없었다며 웃고 지나갔다. 기설 선배는 방문을 나서며 리포트 용지 몇장을 찢어 옷 안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방안에 놓여 있던 바나나 몇개도 함께 챙겨서 다시 큰길까지 걸어내려왔다. 택시를 잡아타고 명륜동을 향했고 명륜동에 도착해서 임근재씨가 말한 술집을 찾아갔다.

당시 술집안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우리 셋은 술을 주문했으나 이야기도 많이 오가지 않았고 술도 서로 안 마시는 상태에서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본인이 범대위 상황실로 전화를 하러 나가 전화박스를 찾는데 기설 선배가 술집을 나오고 있었다. 본인은 전화를 걸러가는 게 선배에게 불쾌할 듯하여 임근재씨가 김 선배를 쫓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임무영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기설 선배가 결심이 있는 것 같고 가능한대로 빨리 연대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와 한참 있는데(약 5-10분) 김 선배와 임근재씨가 돌아왔고 자리에 앉았다. 임근재씨가 김 선배에게 메모를 건네면서 '도레가 보는 앞에서 찢어라'고 하자 기설 선배는 메모를 묵묵히 찢었다. 임근재씨는 김 선배의 결심은 소영옹주의에 불과하다며 나무랐고 김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본인은 이때 처음으로 김 선배의 결심과 관련해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생각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그전부터 피곤하니 일어서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김 선배는 본인의 말에 나가서 이야기를 더 하자며 일어설 것을 권유했고 우리 셋은 술집을 나와서 비를 맞으며 동승동을 향해 걸었다. 걸으며 방송통신대 서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래도 부르곤 했다.

가다보니 서클 K라는 편리점이 눈에 띄어 그곳에서 장난도 치고 커피, 초콜릿도 사 먹으며 사뭇 이완된 분위기였다. 편리점에서 나와 방통대 방향으로 걷던 중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며 본인이 쉬었다 갈 것을 제안 화장실에도 들리고 미끄럽도 타면서 있었다.

술집을 나와 동승동으로 오던 시간은 4시40분-5시 사이였고 마로니에 공원에 간 시간이 5시 10분 전후였다. 당시 비가 계속 오던 터라 이웃한 건물 현관 처마에서 비를 피해 잠시 앉았는데 김기설 선배가 전화걸 곳이 있다며 잠시 기다리라고는 뛰어갔다. 본인은 걱정이 되어 임근재씨에게 쫓아 보라고 했고 뛰어간 임근재씨가 잠시 후 돌아와 기설 선배가 전화를 걸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임근재씨와 본인은 약 1-2분 남짓 기다리다 염려가 되어 임근재씨가 다시 전화박스로 뛰어가서 기설 선배가 사라졌음을 알고 제게 소리를 쳐서 뛰어나가 임근재씨는 지하도 방향으로 본인은 방통대 방향을 살펴보았다. 본인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연대 상황실의 임무영 선배에게 기설 선배를 놓쳤다고 전하고 기설 선배가 혼자 연대에 왔다간 적이 있다고 했으니 연대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우선 연대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 끊은 후 본인은 계속 방통대로 와 공원주변에서 기설 선배를 찾았다. 5시50분경 다시 연대로 전화를 해 일단 연대로 돌아와라는 말을 듣고 임근재씨와 연대로 갔다.

6시경 연대에 도착해서 학생회관 입구에서 김기설 선배를 찾기 위해 나오는 임무영 선배와 김명운 서울민협 사무처장, 국연실무자 1인, 김균묵 민주당 파견인, 홍진표 전민련 조통위 실무자 등을 만났다. 잠시 경위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은 정문과 영안실로 흩어져 기설 선배를 기다려보러 가고 본인은 김균묵 총국 국원과 학생회관 옥상 등을 올라가 보았다. 입구가 막혀 있음을 확인한 후 줄곧 학생회관 입구에서 백양로를 내려다보며 형이 보이길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에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기설 선배가 한대 출신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니 한대로 누가 가보아야겠다고 부탁을 함에 따라 정운서, 김형민 선배가 한대로 갔음을 뒤에 알았다. 계속 기다리다 잠시 상황실로 올라갔을 때 홍성은양의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때 임근재씨가 북가좌동 자취방에 가봐야겠다며 나간 것으로 기억되고 본인은 김균묵씨와 함께 기설 선배가 전화를 걸었다는 이대 부근을 찾아보러 연대 후문을 통해 이대 부근을 와서 돌아다녔다.

8시경에 김균묵씨를 만나 연대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고 연대에는 8시 20분쯤 돌아와 학생회관에 들어서

는데 진관 스님이 서강대생이 분신을 했으니 영안실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본인은 몹시 당황하여 상황실로 뛰어올라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시 내려와 학생회관 로비에서 김기설 선배를 기다리던 임무영 선배에게 상황을 전하고 함께 뛰어올라갔다. 이때 막 라디오 뉴스에서 분신 소식을 알렸고, 곧이어 서강대에서 기설 선배의 신원을 알리는 전화가 왔다. 본인은 이후의 상황은 아는 바가 없고 전화를 받은 직후 임근재씨가 서강대를 다녀오겠다며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1. 김기설 수첩 보관 및 제출 경위

본인이 5월 9일 총무국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전민련 편집실 최재인 부장이 김기설 선배 관련자료라며 봉투 하나를 맡아 달라기에 총무국 사물함에 넣어두라고 했다. 최재인씨는 봉투를 사물함에 넣었고 본인은 넣는 것을 보기만 하고 계속 총무국 업무를 보았다.

본인은 이후 12일 김기설 선배 장례식일까지 수첩의 소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잊고 지냈다.

5월 12일 오전 10시경 원순용 전민련 선전부장이 김선배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며 소재를 찾는데 본인은 그때사 봉투를 보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봉투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찾던 중 김 선배의 수첩을 처음 보았고 수첩 권장에서 끼워져 있던 주민등록증만 빼내어 원 선배에게 건넸다. 그후 다시 수첩은 봉투에 담아 총무국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 이때 수첩을 보관한 사물함은 범대위 상황실의 방중 총무국실에만 보관되었고 총무국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총무국 외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열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한 후에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되고 있었다.

5월 13일 오후 총무국의 다른 비품들과 함께 사물함은 봉합되어 강경대군의 빈소가 옮겨진 명치대로 옮겨졌다. 그리고 사물함의 봉합을 풀지도 않은 채 다시 15일 연대로 옮겨졌으며 이후에는 총무국실을 다른 용도로 쓰고 상황실에 칸막이를 하고 총무국원이 24시간 상근하면서 업무를 보았다.

18일 오전 9시에서 10시경 장례행렬이 나가기 전에 모든 비품을 전민련에 보관하기 위해 정리했다. 봉합

을 해서 김현수 선배가 모는 픽업차량에 실었고 본인은 다른 차량편으로 장례행렬 뒤를 쫓았고, 그날 귀가한 후 19일 낮 1시경 김현수 선배로부터 수첩을 보관하고 있다는 질문을 전화로 받고 소재를 알려 주었다. 곧이어 전민련에 보관 중인 사물함에서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5월 19일 밤 9시경 명동성당에 왔다가 10시경 김현수 선배가 수첩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고 당시 함께 있던 최규성 서울민협 부의장과 서준식 위원장, 몇몇 전민련 관계자들과 함께 수첩이 있으니 검찰의 대필주장은 곧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기뻐했고 최규성 선생님의 부탁대로 본인은 몇 사람들에게 수첩의 전달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여 드렸고 이튿날 전달경위 메모와 수첩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

1991년 7월 3일

이 보 은

☐자료 가-1-137 (수사기록 817~828)

진 술 조 서

- ①성 명 이 보 은 (李保根) 아명 : 도례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거
- ④본 적 상 동
- ⑤지 업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근무
- ⑥연 령 22세 1968. 9. 18생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성남시 단대동 소재 송신여고를 1987년에 졸업하고, 그해 서강대 사학과에 입학한 후 금년 2월에 사학과를 졸업하고 저의 아버님인 성남 주민교회 목사 이해학이 조용술 목사님,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겸 평화연구소 소장 조성우와 범민족연합 결성준비회담차 베를린에 갔다가 북조선 조평통 부위원장 전금철을 만난 사실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어서 구속자 가족들과 접촉을 하면서 전민련 구속자 가족모임을 만들려고 1991. 4. 8 전민련에 드나들기 시작하였고 전민련 조통위 부장인 정윤서의 권유로 전민련의 일을 거들어 주고 4월말부터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상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1991. 4. 28경 연대 학생회관 3층에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폭력살인 및 공안동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총무국에서 일하면서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피의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를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위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범국민 대책회의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는가요.

답 : 1991. 4. 28. 밤부터 5. 18. 아침까지는 연대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총무국에서 일하였는데, 사흘에 한번 정도씩 자정이 지나 집에 가서 쉬었고, 5. 18은 강경대군 장례식이라 장례식에 참석을 하여 모금함을 수거하러 다니고 5. 19. 밤부터는 명동성당에 옮겨 6. 8. 22:00경까지는 명동성당으로 옮긴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일을 하였는데, 5월말까지는 역시 사흘에 한번 정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5월말부터는 거의 명동성당에서 잠을 자고 일하였습니다. 5월 하순경까지는 전민련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 임근재, 장준호, 강기훈 등을 아는가요.

답 : 김기설은 성남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일할 당시인 1988년 말경 위 민청련 사무실이 저의 집인 성남 주민교회와 가까와 길에서 몇번 본 적이 있고, 저의 친구인 성현정(전화:755-8478), 교회선배인 이호경(여, 29세)을 통해 이름을 들어 처음 알았었고 당시 주로 한정덕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김기설이라는 본명을 아는 것 같았고 한양대를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근재를 알게 된 것은 1990. 11. 30. 아버님인 이해학 목사가 연행된 날 밤에

동생인 이보라(일명, 미파)와 함께 전민련 사무실에 가서 농성을 하면서 저를 임근재가 보았다고 하는데, 저는 1991. 4. 27.경 연대 범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서 저에게 임근재가 그런 말을 해주고 동생 이보라의 한신대 선배라고 하여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준호는 제가 연대 범국민대책회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고, 강기훈은 제가 전민련 상근자로 일하면서 얼굴을 보아 알지만 한번 1991. 4.월경 한번 점심식사를 한 기억이 있고 그후 1991. 5. 19.경 명동성당에 이동한 후 자주 만나 아는 사이입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의 본신이 있기 직전에 김기설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1991. 5. 8. 00: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김기설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답 : 제가 1991. 5. 7. 21:30경 연대 범대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황실 입구 복도에서 이지혜(이름은 5. 8. 기자회견시 처음 알았음)가 찾아와 전민련 사람을 찾기에 만나보니 "김기설 선배가 5. 5. 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분신하겠다고 하였고, 5. 7.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약속장소에서 3시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전민련 사람들을 통해 김기설 선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찾아왔다"는 요지의 말을 하여 제가 놀라서 범대위 부대변인인 전민련 사회부 부장인 임무영을 불러 함께 같은 층에 있는 "푸른샘" 휴게실 방으로 들어가 확인한 후 저희들은 김기설의 짐을 몰라 임무영은 김기설과 같이 지낸다는 장준호, 임근재를 수소문하고 저는 성민청 동료인 정일부(성민청 회장), 성남 천세용열사 분신대책위(경원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김기설의 행방을 아는지를 수소문하고 정일부로부터 김기설의 집과 안양 누나집, 친구 한송흠 전화번호를 받아 정윤서에게 건네주어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정윤서가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2:30분경 임근재가 전화를 하여 임근재는 자취방으로 가보기로 하고 장준호는 흥성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후 23:40경 임근재로부터 전화가 와서 김기설을 찾아 같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북가좌동의 포장마차에 있으니 같이 시간을 끌자고 하고 위치를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문 : 당시 대책위 사람들 중 누가 김기설의 분신기도를 알았는가요.

답 : 저와 임무영이 알았고, 임무영 선배로부터 들은 사람들과 정윤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그렇다면 북가좌동 포장마차에는 진술인 혼자 갔는가요.

답 : 그렇습니다. 가보니 실내 포장마차집이었고, 임근재, 김기설이 같이 있었습니다.

문 : 임무영은 가지 않았는가요.

답 : 임근재가 여러 사람이 오면 김기설이 뛰쳐나갈지도 모르니 제가 와 분위기를 바꾸고 시간을 끌어달라고 하여 제가 임무영과 상의하니 저만 가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의 복장은 어떠한가요.

답 : 당시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운동복이고 신발은 슬리퍼였던 것 같습니다.

문 : 북가좌동 포장마차에 간 이후의 경위를 계속하여 진술하십시오.

답 : 포장마차에 간 시간은 5. 8. 00:30경이었고 가니, 김기설이 임근재 친구가 온다더니 왜 내가 왔느냐고 하였고 제가 실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임무영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기설이 분신하려고 한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고 주로 전민련에 대한 저의 느낌 등과 성남 민청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기설은 최근 어머니 산소를 다녀왔다,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하였다, 전민련을 떠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김선택에 대하여 성급하고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않느냐고 하니 용감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서준식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진에 대하여 자신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고 맥주를 3명이 10병 넘게 마시고 임근재가 계산을 한 후 02:00이 지나 도보로 자취방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인 연립주택 4층 정도 옥상에 붙은 방에 가서 김기설이 양복으로 갈아 입고 3명이 걸어 내려와 택시를 타고 명륜동 소재 성대 앞의 상호불상 술집으로 갔습니다.

문 : 왜 양복으로 김기설이 갈아 입었는가요.

답 : 임근재가 명륜동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니

김기설이 옷을 갈아 입고 가차고 하여 자취방으로 가 옷을 갈아 입은 것입니다.

문 : 포장마차에서 노래를 불렀는가요.

답 : 김기설이 소양강치너라는 노래를 부르고 운동권 노래 몇 곡을 불렀는데, 곡명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옆 자리에서도 저희들을 따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자취방에서 김기설이 쓴 유서를 보았는가요.

답 : 유서를 보지 못했고, 김기설이 방문을 나서면서 리포트용지를 몇장 찢어 주머니에 넣고 나왔는데 리포트 용지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어떤 필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요.

답 : 그날 어떤 필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저희와 헤어질 때까지 필기구를 가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 : 명륜동 술집에 간 이후의 경위를 계속하여 진술하십시오.

답 : 그날 03:00경 명륜동 술집에 도착하여 백주 3-4병을 시켜 놓고 앉아 있다가 제가 밖으로 나와 임무영에게 전화를 하려고 전화박스를 찾는데, 김기설이 밖으로 나오고 임근재가 쫓아나오므로 저는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임무영에게 전화를 하여 "김기설 선배가 결심이 있는 것 같고 가능한 한 빨리 연대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화하고 그후 임근재가 김기설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메모를 김기설에게 주면서 "도레(제 아명임)가 보는 앞에서 찢어라"고 하여 김기설이 찢었고 임근재가 "네 결심은 소영옹주의에 불과하다"고 하여 제가 김기설의 결심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그후 김기설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3명이 천천히 걸어서 그날 05:00경 동송동 소재 "서클 K"라는 24시간 영업의 슈퍼마켓 체인점에 가서 커피, 초콜릿을 사먹고 김기설이 88라이트 담배를 1갑 샀고 다시 방송통신대 써클룸으로 향하던 중 마로니에공원을 지나며 제가 쉬었다가 가차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05:10경이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이웃한 건물 현관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중 김기설이 전화를 할 곳이 있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뛰어가 임근재가 쫓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곧 임근재가 쫓아갔다 전화하고 있다고 하며 들

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근재가 공중전화 박스로 가더니 김기설이 없어졌다고 하여 임근재는 지하도 방면으로, 저는 방통대 방면으로 뛰어갔다 김기설이 안보여 저는 길을 건너가 임무영에게 연락을 하고 연대에 갈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김기설을 찾다가 05:50경 연대로 전화를 하니 임무영이 일단 연대로 돌아와 대책을 세우자고 하여 06:00경 임근재와 함께 연대로 돌아갔습니다.

문 : 임근재가 김기설에게 찢으라고 주었다는 메모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진술인은 김기설의 필적을 아는가요.

답 : 당시 메모지의 내용은 보지 못하였고 제가 보기에 리포트용지 약 4분의 1정도의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설의 필적은 그전에 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

문 : 임근재는 김기설을 쫓아갔다 왜 공중전화 박스 옆에 있거나 빈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진술인에게 돌아왔는가요.

답 : 잘 모르나 그전에 결심을 철화한 듯한 느낌을 받고 기분이 나빠질까봐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 : 어디에 전화를 한다고 하던가요.

답 : 그냥 전화를 한다고 가버려 어디에 전화를 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문 : 전화한 곳의 약도를 그려 줄 수 있는가요.

답 : 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이 작성한 약도를 제출받아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 전화 임근재는 5. 8 새벽에 진술인이 자신 및 김기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술인이 임근재, 김기설과 당시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당시 임근재는 묻지 않아 구태여 진술할 필요가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임근재는 김기설이 동송동에서 없어진 후 자취방에 가보니 양복이 없어 김기설이 양복을 갈아 입고 간 것으로 전화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진술인은 이미 북가좌동 포장마차에서 이동할 때 자취방에 들러 양복을 갈아입은 것으로 진술하니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제 말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저와 그날 있었던 일을 확인하며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근재가 경찰에서 착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홍성은이 대책위에 인계해준 수첩을 보관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1992. 5. 9. 낮에 전민련 편집실 부장인 최재인이 김기설 관련서류이니 보관해 달라고 하여 서류봉투 1점을 내용을 확인없이 받았다가 범대위 총무국 상왕실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수첩이 위 봉투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요.

답 : 1991. 5. 12. 09:00경 김기설의 장례식날 원순용(전민련 선전부 부장)이 매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니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제가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최재인이 저에게 주었다고 한다고 하여 제가 사물함의 서류봉투를 찾아보니 수첩이 있었고 수첩 비닐카바에 주민등록증이 있어 꺼내 주어 수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 : 당시 수첩이 찢어진 상태였는가요.

답 : 당시 수첩을 자세히 보지 않아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내용도 당시 잘 살피지 않았습니다.

문 : 수첩은 어떤 상태로 보관하였는가요.

답 : 서류봉투가 봉해지지 않은 상태로 최재인으로부터 받아 그 상태로 사물함에 넣었고 5. 13. 강경대 장례식을 위해 빈소와 범대위 사무실을 명지대로 옮기면서 제가 테이프 봉하였다가 5. 15. 다시 사무실을 연대로 이동하고 5. 18. 강경대 장례식을 다시 시도하면서 09:00경 비품을 전민련에 보관하기 위해 정리를 하고 김현수(전민련 조직국 부장)가 모는 픽업차량에 테이프 봉하고 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위 수첩을 다시 본 것은 언제인가요.

답 : 5. 19. 22:30경 명동성당에서인데, 그날 13:00경 김현수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여 제가 연락을 받고 전화를 하니 수첩을 찾아 전민련에 준 범대위 총무국 사물함에 든 대변인실 짐에 수첩이 있다고 알려주고 수분 후 확인하니 찾았다고 하였고 21:00경 명동성당에 가 있었더니 김현수가 22:30경 수첩을 가져왔고 사본도 여러 부 가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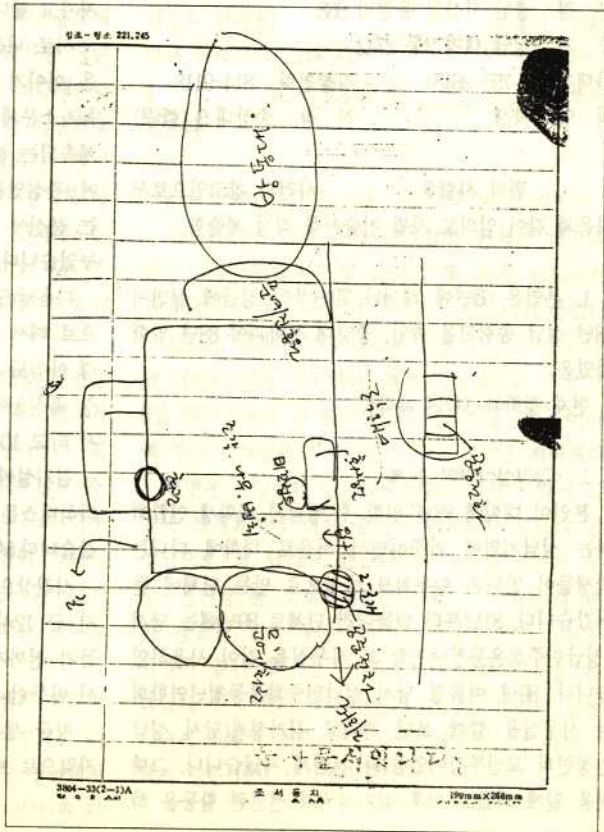
문 : 당시 김현수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답 : 수첩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서준식, 최규성, 박홍순, 이동진 등이 함께 보았습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임근재가 경찰관에게 연대회의실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제가 진술한 것이 정확한 것이니 임근재를 조사하여 보십시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보는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송명석

검찰주사(보) 김성수

☐자료 가-1-138 (수사기록 829~836)

진술서

성명: 김병희 (金秉禧) 성별: 남
연령: 22세 (1969. 10. 1생)
주민등록번호:
본적: 충남
주거: 성남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업: 학생 직장: 중앙대 3 (哲學)

위의 사람은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1. 본인은 69년에 태어나 79년부터 성남에 살면서 88년 성남 송림고를 졸업, 중앙대 철학과에 88년 입학 하였음.
현재 철학과 3학년 재학중.

2. <김기설씨와의 관계>

본인이 대학에 88년 입학 후 성남시 대학생 연합회 라는 성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든 향우회를 중심으로 만든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81년부터 만들어진 단체로 89년에는 당시 "성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89년 여름경 당시 성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의 사무실을 함께 쓰던 관계로 김기설씨(당시 성남 민청련의 교선부장이었음)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김기설씨가 전민련 활동을 하

러 서울로 갈 때까지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봄 성민청이(성남민주화운동청년협의회)의 약자) 여러가지 이유로 해체되고 나서부터는 가끔씩(1달에 한번쯤)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난(91년 5월 6일) 때까지 가끔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성남 소식을 물어보면 알려주고 누구누구는 잘 지낸다, 무슨일을 하고 있다, 등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5. 6일에도 집에 있는데 밤 9-10시쯤 전화가 걸려와서 "나 여기 시청 앞 다방인데 잘 지내나? 오늘 잠깐 성남에 왔는데 너희 집에서 잘 수 있겠나? 일단 여기 시청 앞 까뜨방이란 다방으로 나와라."

만났다. 12시쯤 본인의 집에 잠을 자러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1시 넘어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보통 만나면 간단하게라도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날은 본인이 다음날 수업발표가 있는 관계로 일찍잠자자고 했다.

서로 나는 이야기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원진레이온 이야기 정도... (며칠전 김기설씨가 원진레이온 독가스문제를 조사하러 갔었다고 함). 그외에는 당시 계속되는 분신이야기에 대해서 당시 학생으로서 사회에 관심있는 누구누가 나눌 정도의 이야기(김기설씨는 분신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찍 안타까워했다)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5월 7일) 본인은 아침 10시에 수업이 있음으로 해서 김기설씨를 재촉하여(늦잠을 잤음) 8시30분경 아침도 먹지 못하고 본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곧장 흑석동에 가는 736번 좌석버스를 성남 시청 앞에서 타고 10시경 흑석동에 도착.

김기설씨는 연대에서 불 일이 있다고 하면서 89년 좌석버스를 타고 신촌에 갔고 본인은 강의실로 뛰어갔습니다.(수업에 늦었음).

시간상으로는 6일 밤 10시경부터 7일 오전 10시까지 근 12시간이나 함께 있었지만 다음날 분신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농담을 하면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성남에서 옛날 알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러 왔었던 것 같습니다.

3. <5. 12. 장례식 참석서 상황>
마석 공원묘지에 성남에서 아는 사람들이랑 함께 다녀왔음. 성남에 와서 헤어지고 집에 갔음. 몇일 뒤에 유서대필 문제로 시끄러워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음.

4. <김기설씨 필적을 찾아 기자회견하기까지>

오월 19일인지 20일인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장례식 이후 아무일 없다가, 갑자기 T.V, 신문 등에서 필체가 다르다고 떠들기 시작하길래 유서의 필체가 평소 기설형의 필체임을 잘 아는 본인은 괜히 떠들다가 말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사회문제가 되면서 언론에 들먹거리길래 나름대로 김기설형의 필체를 증언해 줄 자료를 찾아보았다. 91년 초 김기설씨가 서울 전민련 일을 하니까, 성남의 방을 비우게 되자 짐의 일부(책 몇권)를 본인이 맡아 보관해 오고 있었음으로 그 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등본 2통, 초본 1통이 이력서와 함께 편지봉투에 담아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본인의 단체(터사랑 청년학우회)가 89년 10월 3일 이전의 "성남시 대학생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개천절날 터사랑 청년학우회 출범식을 경원대에서 했을 때 김기설씨가 '성민청' 교선부장의 자격으로 경원대에 와서 "방명록"에 서명하였던 자료(당시 방명록을 본인의 단체에서는 보관하고 있었음)를 찾아냈다. 이밖에도 "더 없나?" 하면서 기설형의 옛날 상대원 자취방에도 가서 알아보았으나 없었음.

위 2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21일 점심때쯤 본인은 서울 명동성당으로 찾아가서 김기설씨의 유서필체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전달하였다. 평소 김기설형의 필체를 잘 알고 그 형이 하는 말투 즉, 유서에 나타나는 " ~임을 선포한다"는 식의 어투를 잘 아는 본인이었기에 이 사건의 검찰의 정치성 있는 억지조작 혹은 언론공세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로 가지 않고 명동성당에 가져간 것이었다.

명동성당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남지역에서 안면이 있었던 성남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님의 따님 "이도레"씨한테 전했고 성남에서 함께 온 본인의 단체 부회장(김시중-한대 전산)과 다

음날 아침(22일 아침 9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술한 필체의 입수경위라든지 평소 기설형과의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본인은 학교에 갔습니다.

5. <방명록 필적이 김기설씨의 필체라는 확인>

89년 본인의 단체가 명칭을 바꾸면서 경원대에서 출범식을 10월 3일 하였습니다. 경원대 장당에는 그 당시 본인의 은사이신 전 송림고 전현철 선생님께도 오셨고 1, 2백명의 사람들(대부분은 본인 단체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기설형은 성남 민청련 교선부장으로 전현철 선생님과 함께 참석하여 나란히 서명하였고 본인은 당시 은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문앞에 나가서 인사하면서 방명록에 한말씀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 방명록의 같은 면에 몇 사람의 이름이 함께 서명되었고(각기 그들의 필적으로) 김기설형의 이름은 전현철(전교조 경기도 지부장) 선생님 아래 맨 밑에 있습니다. 그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설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6. <기자회견(22일) 이후 지금까지 명동성당에 간 일>

기자회견이 있는 후에도 기설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서 몇 차례 이도레씨의 집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냐고 물었다.

한번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필적 입수경위, 평소 기설형과의 관계, 5월 6일 본인집에서 잔 일) 이석태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 해 주고 이와같은 자술서를 써주고 지장을 찍어줬다.

한번은 본인한테 이도레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김기설씨 필적문제에 대한 증언이 필요할지 모르니 명동성당으로 와 달라고 했습니다. "공청회"였는데 민주당, 신민당 등 국회의원들(장기욱, ... 5인)과 변호사, 종교인, 기자 등등한테 사건설명을 하였고 본인은 설명이 끝난 후 "말"지 기자가 간단한 질문을 하여 대답해 주고 왔다. 김기설씨가 6일 밤 본인의 집에서 자면서 특별한 것은 없었나는 내용이었는데 아까 2번에서 말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7. 이도례

성남지역에서 이래저래(주민교회 목사님 따님이었고 지역에서 농활도 함께 갔었음) 안면이 있었으나 정식으로 인사한 것은 8일 연세대 기설이형 영안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마다 주민교회로 몇 차례 전화해보았습니다.

91년 7월 3일
진술인 김 병 희

☐자료 가-1-139 (수사기록 837~845)

진 술 조 서

성 명 : 김병희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성남 / 전화
본 적 : 충남 /
직 업 : 학생 연령 : 22세 (1969. 10. 1생)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 1015호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본인은 위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중앙대학교 철학과 3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1. 저는 조금전에 제가 전민련측에 제출한 방명록 및 이력서 문제에 관하여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검사님이 보충하여 질문을 하겠다고 하므로 사실대로 대답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 진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 문 : 진술인이 김병희인가요.
- 답 : 예, 제가 김병희입니다.
- 문 : 진술인은 조금전에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전부 사실대로 기재하였는가요.
- 답 :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문 : 김기설을 최초로 만난 것이 정확히 언제인가

요

답 : 89년 초 여름인데 월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성민청이 해체된 것은 언제인가요.

답 : 90년 초순경 추울 때인데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성민청이 해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자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나중에는 김기설 형 혼자서 일을 하다가 해체되었습니다.

문 : 사무실을 같이 쓸 때는 거의 매일 만났는가요.

답 : 매일 만나다시피 하였습니다(특히 방학때).

문 : 그러면 김기설과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91년 5월 6일 김기설을 최후로 만났을 때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 자신이 하는 원진레이온 일 등 자신의 일과 성남지역의 소식, 친구나 후배들의 소식에 관하여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자신도 분신자살을 하여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가요.

답 : 그런 말은 없었고 강경대군 및 경원대 천세용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깝다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김기설이 5월 7일 아침 연세대에 간다고 하면서 무엇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안하던가요.

답 :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이 불일이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5월 8일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듣고 연세대에 간 일이 있는가요.

답 : 저의 단체 선배인 오철훈씨가 아침 뉴스를 보고 저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바로 갔습니다.

문 : 연세대에서 누구를 만났는가요.

답 : 김기설의 가족, 이도례씨, 임근재씨, 그리고 제가 아는 성남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문 : 임근재와는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는가요.

답 : 그날 제가 그곳에서 밤을 세웠는데 그때 임근재씨와 처음 인사를 한 것으로 기억나고, 인사하게 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김기설 필적을 찾는 일은 진술인 혼자하였는가요.

답 : 김기설의 필적이 문제가 되니까 민청련 회원인 이효경씨가 저희 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느냐"라고 하여 처음에는 없다고 하였다가 기설형의 필적이 자주 문제되어 나중에 김시중과 제가 필적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김기설형이 이전에 대유공전 대학신문사에 원고를 냈다고 한 말이 기억나서 대유공전 신문사에 가보았으나 없애버렸다고 하여 그냥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전민련에 제출한 필적은 방명록과 이력서 뿐인가요.

답 : 필적이 기재된 것은 두 개뿐이고 이력서가 끼어 있던 책 두 권도 전민련에 제출하였습니다.

문 : 전민련에 간 것은 5월 21일인가요.

답 :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전민련에 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이도례씨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기억나는 사람은 서준식씨 정도입니다.

문 : 방명록은 책 전체를 가져다 주었는가요.

답 : 그 방명록은 대학노트 1권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김기설형 글씨가 있는 부분만 찢어서 복사하여 제출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찢어진 김기설씨—69)대학노트 한권을 같이 갖다 주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5월 21일에 명동성당에 가서 방명록 등을 내주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간에 어디 있었는가요.

답 : 방명록을 줄 때 이도례씨가 내일 9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니 나오라고 하여 보니 명동성당에 저희 학교 친구들이 지지농성을 하고 있어 같이 합류하기로 하고 밤을 세웠습니다.

문 : 그간에 방명록은 이도례씨나 전민련이 보관하였는가요.

답 : 하여튼 이도례씨가 가지고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 9시 기자회견을 할 때 다시 돌려받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돌려주었는데 제게 방명록을 준 사람

또는 다시 돌려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당시 방명록에 있는 김기설의 필체와 이력서에 있는 김기설의 필체를 보았는가요.

답 : 예, 보았습니다.

문 : 두 필체가 닮았던가요.

답 : 다른 것은 사실인데 제 생각에 하나는 정자체고 하나는 속필로서 동일인이 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평소 김기설이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는가요.

답 : 같은 사무실을 쓸 때 기설형이 칠판에 글씨를 쓰거나 —70) 차트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 주로 흘림체를 썼습니다.

문 : 정자체를 쓴 것은 보지 못하였는가요.

답 : 쓰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문 : 이견 방명록이나 이력서를 김기설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보았는가요.

답 : 이력서는 보지 못하였고 방명록은 제가 자술서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 기설형이 저의 은사인 전현철 선생님과 같이 왔고 방명록에 나란히 서서 서명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문 : 진술인이 명동성당에 방명록 등을 제출한 것은 누구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제 판단에 이대로 있어서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자의로 갖다 낸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은 강기훈을 아는가요.

답 : 유서대필 혐의로 신문에 보도되기 전까지 몰랐고 명동성당에서 방명록을 가지고 가서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문 : 강기훈과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강기훈이 자고 있는데 제가 가서 제 소개를 하고 요즘 어때요 하며 인사를 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문 : 진술인이 이석태 변호사와 만났을 때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 김기설의 6일 날 행적, 이력서 입수경위, 방명

69) 지문으로 판독 불가. 3 내지 4자. (수사기록 840정).

70) 지문으로 판독 불가(수사기록 841정)

록 제출경위 등을 이야기해 주자 변호사가 그럼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여 백지 두 장에 행적과 이력서 입수경위를 쓰고 지장을 찍어 변호사에게 주었습니다.

문 : 명동성당에서 국회의원들과 만나 설명회를 할 때 그 자리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는가요

답 :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장기옥씨가 있었고 신민당에서 두 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전민련측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왔는데 서준식씨도 있었고 증인으로는 여자 두 명 그리고 남자 증인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문 : 김기설이가 방명록에 서명할 때 김기설이라고 썼는가요

답 : 방명록에는 가명인 한정덕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김기설형을 처음 만나 인사를 할 때 기설형이 자가 한정덕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여 그후 제가 그를 정덕이형이라고 부르다가 그와 친해진 이후인 몇 달 뒤에 본인이 자기 김기설이라고 하여 그의 본명을 알게 되었는데 정덕이형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71) —때까지 만났을 때 정덕이형이라고 호칭을 하였습니

다.
문 : 최초 검사와 이야기할 때 명동성당에 방명록을 제출한 후 명동성당 사람들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그리하였는가요

답 : 그때는 기억을 하지 못하여 그리 한 것 뿐입니다.

문 :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로 더 할말이 없는가요

답 : 기설형의 필체는 평소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할 때 저는 검찰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논쟁에서 검찰이 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더 할말이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71) 지문으로 판독 불가(수사기록 843정).

진술자 김병희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순

검찰주사(보) 임영근

☐자료 가1-14 (수사기록 846~854)

피의자 신문조서

(제 5 회)

성명 장기훈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보)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전회 진술한 것은 사실대로 인가요

답 : 네,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죽은 김기설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주로 누나들 손에서 자라났는데, 또 평소에 계모가 여러 번 바뀌어 계모에 대한 정도 없고 지금의 계모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유서에서 "아버지, 어머니, ... 여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라는 등 어머니를 찾으면서 유서를 쓸 수 있다고 피의자는 생각하는지

요
답 : 김기설의 가족관계가 과연 그러하다면 어머니를 찾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는 있겠으나 자기를 키워준 누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지난번 조사를 받을 때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가 그것이 끼워져 있는 수첩 본체의 절취선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겹쳐져서 본래의 수첩에서 찢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피의자의 육안

으로 보아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지요

답 : 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 : 그렇다면 전민련측에서 12일간을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김기설의 수첩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문제의 전민련 수첩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수첩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 아닌가요

답 : 그것은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두 개 이상의 수첩이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감정결과 수첩의 본체 부분에 있는 글씨와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의 글씨가 육안으로도 그렇고 필적감정결과로도 동일인의 필적으로 나타났는데 피의자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답 : 제가 눈으로 보기에 두 가지 글씨는 한 사람의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문 : 그렇다면 이 수첩은 먼저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가 다른 수첩에서 찢어내어 새로이 작성된 것이고 따라서 이미 죽어버린 김기설의 글씨일 수는 없지 아니한가요

답 :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수첩이 동원된 것이 사실이니 어쨌든 수첩의 본체부분이거나 그곳에 꽂혀 있는 전화번호 기재부분이거나 둘 중의 하나는 김기설의 사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두 부분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일 경우 이진 수첩의 글씨는 모두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씨일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요

답 :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논리적으로 이진 수첩이 조작되었고 그 글씨는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이진 전민련 수첩의 글씨와 전민련 측이 5. 11.에 김기설의 글씨라고 제출한 업무일지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 5 회)

성명	장기훈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	에서		
검사	신상규	는(은)	
검찰주사(보)	신인섭	을(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피의자가 전회 진술한 것은 사실대로 인가요		
답	네,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죽은 김기설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주로 누나들 손에서 자라났는데, 또 평소에 계모가 여러 번 바뀌어 계모에 대한 정도 없고 지금의 계모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유서에서 "아버지, 어머니, ... 여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라는 등 어머니를 찾으면서 유서를 쓸 수 있다고 피의자는 생각하는지		
답	김기설의 가족관계가 과연 그러하다면 어머니를 찾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는 있겠으나 자기를 키워준 누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와 또 김기설 명의의 유서의 글씨가 서로 같다고 보는가요, 아닌가요

답 : 제가 보기에는 필적전문가가 아니지만 한 사람의 글씨로 보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유서와 같은 글씨인 전민련 수첩이 조작되어 있고 그곳에 남아 있는 글씨가 김기설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이니 결국 유서는 김기설이가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사실도 틀림없다고 보이는데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제가 보기에 유서와 업무일지와 전민련 수첩의 글씨가 모두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유서, 업무일지, 전민련 수첩의 글씨들은 모두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고 다른 한 사람의 글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전민련측이 제출한 전민련 수첩의 글씨를 유서와 같은 글씨로 조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피의자는 생각하는가요.

답 : 유서가 대필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유서와 같은 글씨인 사회국 업무일지도 같은 이유로 유서를 대필한 사람이 김기설의 사후에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

답 : 물론 유서가 대필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새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기설이 쓴 글씨를 찾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놓은 업무일지 글씨가 유서와 같은 글씨이니까 그것이 김기설이 죽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김기설의 글씨라고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 : 그러나 피의자도 여러 차례 보았듯이 사회국의 업무일지는 첫장의 4분의 3가량이 찢어져 나가 있고 두번째 장에서 세번째 장까지는 3. 23부터 4. 15까지의 사업내용이 17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글씨가 4. 9. 한줄만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된 것 같고 나머지 16줄은 모두 같은 굵기의 연필을 사용하여 같은 정도의 빠른 글씨로 한꺼번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중간중간의 줄도 같은 연필로 갖대를 대지 않고 급히 줄을 쳐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한꺼번에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제가 보기에도 매일매일 나누어 쓴 것이 아니고 한번 혹은 두번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김기설의 사후에 급히 조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김기설의 사전에 매일매일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조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는 김기설 명의의 유서,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이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 김기설의 것이라며 제출한 전민련 수첩 등 세 가지의 글씨가 모두 한 사람의 글씨로서 죽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라고 생각한다는 말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김기설의 글씨는 두 가지이며 위 세 가지가 모두 김기설의 글씨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제는 위 세 가지의 글씨는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며 아울러 김기설의 글씨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이제와서 그와 같이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가 처음에 검찰에 출두할 때는 유서는 김기설이 썼고 또 수집된 자료들에 의하여 김기설의 글씨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유서, 업무일지,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의 원본들과 또 김기설의 글씨라며 검찰에서 제시하는 소위 정자체인 글씨들의 원본, 각종 감정사진 등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또 설명도 들어보니 위 자료들 중에서도 수첩이 조작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수첩의 글씨와 같은 유서도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논리적으로 유서를 김기설이 썼거나 또는 김기설의 글씨가 두 가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 이제 피의자가 김기설의 글씨가 두 가지거나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라는 주장이 틀린 것을 알았다면 피의자가 유서를 대필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수첩이나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여야 할 순서가 아닌가요.

답 :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유서를 대신 써주거나 업무일지와 전민련 수첩을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피의자가 직접 썼다고 시인한 피의자의 자술서, 대학노트 등의 글씨와 유서는 물론 문제된 업무일지 및 전민련 수첩의 글씨가 육안으로 볼 때나 필적감정서에 붙어 있는 확대사진을 통해 볼 때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답 : 사실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글씨는 똑같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유서를 써주거나 업무일지와 수첩을 저의 글씨로 조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유서의 글씨와 저의 글씨가 같다는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문 : 피의자가 이견 유서대필자로 지목된 것은 필

적이 같다는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설명하고 추궁하였던 많은 의혹 부분이나 피의자와 김기설 및 홍성은의 관계 그리고 홍성은을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의자의 주장이 어긋나기 때문이며 또 혐의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계속 명동성당에서 자진출두를 거부하고 출두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김기설의 글씨가 두 가지라거나 유서를 쓴 사람이 김기설임에 틀림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비추어 유서를 대필한 사람은 피의자가 분명하지 아니한가요.

답 : 그것은 커다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이 사건을 검찰이 조작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잘못된 오해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도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피의자 자신이 유서의 대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피의자와 똑같은 글씨를 사용하는 유서대필자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대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진술하였고, 누가 유서를 대필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제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의 양심을 걸고 맹세할 수 있으며 유서가 대필된 것이 분명한 이상 유서대필자를 가려내고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강 기 훈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91년 7월 4일

자료 가-1-141 (수사기록 855~863)

진술서

본적 서울
주소 서울
직업 무(전민련 조직부장)
김형민(金亨旻) 30세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1991년 7월 4일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아래와 같이 임의 진술합니다.

1. 4월 26일 이후 전민련 사무실 근무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4월 26일 강경대 치사사건 발생 이후 전민련 사무실의 근무체계는 연세대 대책회의에 임무영(28세) 사회부장, 원순용(28세) 선전부장, 박홍순(28세) 선전부장 등과 김선택(38세) 사무처장 대행 등이 담당하고 사무실 상시근무를 본인과 강기훈(28세) 총무부장, 박선옥(26세) 총무부장, 김현수(30세) 조직부장 등이 담당하며 나머지 근무자는 연대 상황실과 본부를 연락하거나 일상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본인과 김현수는 조직부로서 연락관계 때문에, 강기훈, 박선옥은 컴퓨터 처리와 총무국이기 때문에 사무실 상시근무로 배치되었습니다.
5월에 들어서 May-day행사와 계속된 국민대회 때문에 강기훈과 본인은 더더욱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지역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기훈은 자료를 계속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2. 김기설군의 행적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김기설군은 91년 1월경 전민련에 오게 되었고 과거 성남 민청련에서 일하던 인연으로 성남지역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현수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기설이 처음에 담당한 부서는 총무부서인데 전민련의 일상적 업무 파악을 위해 총무국의 근무가 수습기간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기설군은 총무국에서 일하면서 굶은 일을 마다 않고 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운동 일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민련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입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이 지적하는 전민련에 대한 비판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며 전민련의 활동방식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대단히 수줍어 하는 듯한 모습이 많았으나, 운동 일반의 문제에 접하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술을 과하게 먹고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술을 줄여라'고 주위에서 주위준 적이 있습니다. 3월 김기설이 사회부장으로 옮기게 된 것은 남중현 사회부장이 그만들어서로 인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일을 맡으려는 자세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국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속초 동우전문대생 분신사건이 터지자 김기설과 서준식 위원장이 원주병원과 강릉에 방문했습니다(본인은 이때 조직부 일을 익힐 때이라 몇차례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조직부 일로 인하여 26일(원주에서 강경대 소식을 접했고, 본인은 다음날 태백을 둘러 서둘러 서울에 왔습니다) 원주를 방문했을 때, 원주에서 전통옷을 파는 사람(원주 민청 사무실을 같이 씬)과 술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김기설 얘기를 했습니다. '술 잘먹는다' 등의 얘기였습니다. 김기설 분신 이후 유서문제가 나올 때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원주 전교조 개소식 방명록에 관해 분명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김기설은 속초 동우전문대생 분신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원진레이온사건에도 파견되었으며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사건과 관련하여 타단체 사람들과 접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준식 인권위원

자료 가-2-62 (동아, 91년 7월 3일)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행의점령의 참나인 행방은 찾아
國科搜 필적감정다라 起訴박친

행의점령의 참나인 행방은 찾아
國科搜 필적감정다라 起訴박친
행의점령의 참나인 행방은 찾아
國科搜 필적감정다라 起訴박친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
검찰 善基勸導 시 구수 뒤 무인행진

장은 김기설과 함께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일은 5월 4일 국민대회가 끝나갈 때 본인은 사무실에서 강기훈과 함께 저녁을 시켰을 때 김기설군이 들어와 식사를 추가시켰고, 식사하던 도중 서울역 쪽에서 전화가 와(이동진 부장으로 기억) '여기에 시위대가 있는데 전민련 깃발이 없다' 해서 김기설은 정윤서와 함께 전민련 깃발을 들고 서울역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김기설은 아무 불평없이 식사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1. 강기훈에 관해 말씀드리면

강경대 치사사건 이후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강기훈과 본인은 사무실에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대회를 정리하고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하는 작업을 강기훈이 담당하여 지역에서 전해지는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5월 18일 이전까지 본인은 강기훈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강기훈은 원래 말이 별로 없고 과묵한 편입니다. 가끔 농담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김기설군 장례식 이후 홍성은양이 검찰에 연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걱정은 홍성은양 안부에 대한 걱정이었고 왜 그 친구가 조사를 받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5월 6일(월요일)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서 7일 오전에 제가 무척 화를 많이 냈습니다. 5월 4일 국민대회 정리가 빨리 끝나야 그 상황을 지역으로 발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를 내자 "미안해요, 형"하면서 정말 무척 미안해 했습니다.

강기훈군과 저는 사무실에 함께 일할 때 술도 한두 차례 먹었습니다. 강기훈군은 자주 술을 먹지는 않았고 주량은 보통입니다.

3월인가로 기억하는데, 제가 숙직하는 날 새벽 1시경 전화를 해 "혼자 숙직해요? 제가 갈까요"라고 슬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오지 마라" 한 적도 있습니다.

1. 사회국 업무일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김기설 분신 2-3일 후 11시-12시쯤 되어서 사무실에 들어갈 때 김기설 책상 위에 무엇인가 펼쳐 있어(김기설 분신 후 김기설 책상 위는 가능한 한 본인이 깨끗이 치워 줬음) 지나가며 보니 김기설 글씨의 동우전문대 보고상황이 써 있어서 "이게 무어냐" 하고 얘기하니, 누군지 모르겠으나 "필적 대조용으로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 제출하냐" 하고 그냥 지나쳐 다른 일을 계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는 강기훈과 김현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외에도 몇 명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당시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몇 페이지가 펼쳐졌는지, 어떤 필기도구를 썼는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동우전문대라는 글자를 본 것은 기억합니다. 정확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1. 이상의 진술은 사실과 틀림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991년 7월 4일
진술인 김형민

◎ 91년 7월 5일 ◎

☐자료 가-1-142 (수사기록 864~872)

진술서

(제 2 회)

본적 서울
주소 서울
직업 무 (전민련 조직부장)
성명 김형민 (金亨旻)
주민등록번호 :

서기 1991. 9. 19.생 (만 30세)

위 본인은 1991년 7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아래와 같이 임의 진술합니다.

1. 1991년 5월 7일 24시경 사무실에 들어온 본인은 먼저와 있던 정윤서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수면에 들었습니다.

5월 8일 5시 30분경 전화소리에 깨어나 전화를 받아보니 이도레가 "김기설형이 전화한다고 하면서 도 망쳤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정목인을 깨우고 상황을 설명해 준 뒤, 대책을 논의했는데 별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후 7시경 연대 대책위의 임무영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전민련 실무자 연락해서 빨리 연세대로 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설마 설마했던 본인은 일단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양재원과 최재인에게 전화를 걸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함이 없이 "연세대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가봐라"고 연락했습니다.

이때 정윤서는 일단 한양대에 가본다고 나갔습니다. 전민련 실무자는 이때까지 김기설군이 한양대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8시 조금 전에 김현수가 사무실에 와서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하던 중 정윤서가 8시 조금 지나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조금 전 방송에 서강대에서 학생 1명이 분신했다고 나왔다"며 당황해 했다.

본인은 연대 대책회의 상황실로 전화를 걸고 "서강

대에서 분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어제 찾던 사람이다"고 했습니다. 일단 사망여부, 영안실 등을 확인하고 임무영 등 전민련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 실무자는 "임무영씨 등이 매우 격한 상태라 바꿔주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일단 전화를 끊으면서 본인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옆드려 있는 사이 정윤서는 연대로 가기 위해 나가고 김현수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집안일 관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술한 언론사는 김기설의 신원확인을 요청했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한양대 84학번 철학과 출신은 김기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명이 아니냐'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맞느냐 등의 질문에 본인은 매우 당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서울민협 실무자인 이혜영이 왔으며 강기훈이 왔습니다. 그 시간은 11시 전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경황이 없었습니다. 기자들 스스로 신원을 조금씩 확인하여 1시경에는 완전히 사실확인이 끝났으며 몇명의 기자가 남아 김기설군에 대한 것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마음의 진정을 찾고 지방에 소식을 전하고 또 묻는 소식에 대답하면서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3, 4시경 연세대를 가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먼저 영안실에 들러 분양하고 몇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대책회의 사무실로 올라가서 임무영을 만났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임무영을 데리고 학생회관 앞으로 나와 서로 담배를 피웠는데 임무영이 내 어깨에 머리를 묻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8시경 본인은 연세대를 나와 사무실로 가서 몇 군데 연락을 취하고 왔습니다.

1. 5월 9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월 9일은 '공안통치 분쇄와 민자당 해체의 날'로 기억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각 지역에 전화를 걸어 대회명칭과 주최, 장소 시간 등을 취합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날 대회에 약 40여 시군지역이 참석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계획서를 일단 완성시키고 대회가 시작되면서 부터 각 지역의 대회진행 상황을 취합함과 동시에 서울 상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시위대가 4시경 종로를 지나가자 본인은 김현수, 강기훈 등 당시 사무실에 있던 사람에게 잠시 다녀온다고 하고 종로 6가로 나갔습니다. 시위대를 따라 진행하다가 종로 6가 공중전화에서, 이대 병원에서 3, 4차체 사무실에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던 길에 식사를 했습니다. 약 1, 2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계속 입력 시킨 후 출력을 뽑고 연대 상황실로 갔습니다. 8, 9시경 상황실에 도착하여 대책회의 성명미상(얼굴을 잘 압)의 실무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변인한테 '오늘은 전국에서 40여개 지역에서 대회가 치루어졌다'고 하자 대변인은 '나는 당신 말보다 전농 의장, 전농 정책 실장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농에서는 60여개 군이 대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김거성 목사가 본인에게 와서 9일 대회를 기자에게 주자고 하여 3층 기자실에 전해 주고 1층으로 내려와 커피를 마시면서 기독교 방송국에 인터뷰해야 할 내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거의 12시 가까이 연세대를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1. 5월 10일 상황에 대하여

전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간 관계로 11시경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김기설 책상 위에 속초 동우전문대 등의 관련 행사가 적힌 철을 읽고 "이게 뭐냐"고 하자 주위에 있던 강기훈, 김현수 중 한 명이 "검찰에 보낼 것이다"고 하여 "뭘 이런 것을 보내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쳐서 전화기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설군 분신 직후에 나온 서강대 총장의 "어둠세력 운운"과 검찰의 "배후조작 운운"은 김기설 필체만 유사와 확인되면 해결되리라 생각했고, 5월 투쟁의 열기를 꺾으려고 일부러 나온 얘기로 생각하여 사회국 업무일지만 제출하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일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대에 왔다갔

다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은 뚜렷하게 무엇을 했는가 기억은 없습니다. 3-4시경에 동국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실로 잠깐 쉬러 갔다가 여러 후배들이 5월 정세에 대해 묻고 하여 87년 6월 항쟁과 5월 정세에 대하여 같이 토론하고 밖에서 술 먹고 다시 이종민(국문 81)과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약간 술을 마시고 잤습니다.

1. 5월 11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시경 사무실에 나와 있다가 12시나 1시경 김현수에게 노제사회를 본인이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본인한테 상의 한번 안하고 정하면 어떻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 7시경 원순용이 사무실에 걸어들 플랭카드를 가져와 둘이 함께 달고 본인은 집으로 갔다.

1. 사회국 일지와 관련하여 본인은 사회국 일지를 누가 특별히 찾았다든가 혹은 연대 대책회의로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며 10일 오전에 본 적만 있습니다.

1. 이상의 진술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1991년 7월 5일
진술인 김형민

☐자료 가1-143 (수사기록 873~883)

자 술 서

본 적 서울 시
주 소 경기도
직 업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부장
성 명 정운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61년 3월 27일

1. 저는 1990년 9월 말(10월 초), 민족민주운동세력 내 전선질서 재편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그 논의의

흐름 속에서 보다 시야를 넓히고 전민련을 나름대로 강화시키기 위해 조성우 상집위원과 의논하여 전민련 조동위원회 부장으로 들어왔다. 전민련 조동위에 들어와서 처음 강기훈을 알게 되었으며, 저와 강기훈은 서로 얼굴만 알 뿐 정적으로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또한 1990년 12월 말경 전민련에서 송년회가 있는 날 김기설이 처음으로 전민련에 발을 들여 놓았다.

죽은 김기설과 저는 전민련 실무자(누군지는 기억이 안남)의 소개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지나갔는데(이때 김기설이 앞으로 전민련 사회부에서 일할 것이라 함) 1월 초가 되자 김기설이 정식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김기설이 출근한 지 몇일 정도 지난 후 우연히 김기설, 박선옥, 임무영, 저 4인은 술을 같이 마실 기회가 있었으며 그후 몇번 더 김기설과는 술을 더 마셨으며 2월 말쯤부터 김기설이 자신의 일거리를 찾아 나가면서 서로 바빠지게 되고 저녁에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할 기회는 줄어들었으나 그후에도 2-3차례 함께 숙직도 하고 여럿이 어울려 술도 마시며 김기설의 집안에 대해서 김기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때 자신이 한양대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1991년 5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저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무슨 심부름으로 당시 범국민 대책위가 있던 연세대 학생회관을 향해 동료 김현수의 차(픽업)를 타고 김형민과 함께 연세대로 출발 9시경 연세대 학생회관 앞으로 도착, 당시 범국민 대책회의가 있던 학생회관 3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입구에서 전민련 사회부장인 임무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무영은 저와 김형민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기설이 여자 후배가 왔다 갔는데 기설이가 몇일 전 술을 마시고 분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다. 혹시 기설이 봤느냐?"고 말하기에 저는 "그러고 보니 기설이가 2-3일 안보이는데, 별 걱정 없을 것이다. 누군 학교 다닐 때 분신 생각 안해 본 사람있나? 그 녀석 술마시면 주사가 좀 있지 않느냐? 괜히 기설이 찾는다고 소란 피워서 소문만 커지게 해 기설이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자 임무영은 "아니다. 심각한 것 같다. 그날 울면서 수첩도 다 찢고 주민등록증도 찢을라 그러는 것을 여자 후배가 주민등록증은 찢었다고 한다. 더구나 오늘 저녁 그 여자 후배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안 나타났다고 한다. 찾아보자"라고 하여 저는 별 반응 안보이고 3층 총무국으로 가서 제 불일을 보고 근처 휴게실(3층)에서 김선택 전민련 사무차장, 임무영과 다시 김기설 문제를 의논한 후 김기설 자취 친구 임근재가 그곳에 나타나 혹시 김기설이 자취방으로 올지 모르니 자취방에서 기다리라는 임무영의 말을 듣고 자취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김선택과 함께 차를 타고 다시 전민련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10시경이었다.

사무실에 있는데 10시 10분경 이보은(전민련 실무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몇개(4-5개)의 전화번호를 받아적어 일일이 전화를 걸었는데 파주번호는 김기설 친구 한송홍의 집이었고 수원인가 안양지역 전화번호는 고모인가 외삼촌집이었으며 누나집이라고 돼 있는 4XX-XXXX 번호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번호는 잘 기억이 안남니다.

전화거는 것을 마친 후 이보은에게 전화하여 김기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으며 파주번호는 집이 아니라 친구집이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11시 30분경 임무영에게 전화가 와서 "기설이를 찾았다. 근재가 집에 있는데 기설이가 왔기에 지금 근재가 끌고나가 술을 마시는 중이라고 한다. 보은이도 근재와 기설이가 술을 마시는 곳으로 갔다"며 전화를 끊기에 저는 모든 비상상황은 끝났다고 사무실에 있는 김선택, 김현수에게 전해 주니 그들은 집으로 귀가하였고 얼마 후 김형민이 민족사연구원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들어와 잠을 잤다.

다음날(8일) 아침 7시경 임무영이 전화를 걸어 "새벽 5시경 기설이를 놓쳤다, 우리는 연대를 살살이 뒤져 볼테니, 기설이 모교인 한양대로 가보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한양대로 가서(7시 20분경) 총 학생회실로 갔습니다. 그 시간에 총학생회실에는 학생회 관계자 1인이 컴퓨터를 치고 있었고, 그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김기설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한양대내 학교 건물 3개를 뒤져본 후 김기

설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타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에 거의 사무실로 다와서 라디오로부터 서강대에서 한 학생의 분신 투신 소식을 듣고 급히 사무실로 가서 연대 상황실로 확인전화를 해보니 서강대에서 분신 투신한 학생이 바로 김기설이라고 확인되었다.

1. 5월 11일 시간 미상, 연대에서 시위용품을 가지러 사무실로 가려는데 문국주 천사협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로 가서 김기설 업무일지를 받아 최규성 상집위원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민련 사무실로 가서 핸드마이크 등을 챙기고 강기훈으로부터 받은 72) 하며 김기설의 업무일지를 받아, 김기설의 필체임을 확인하고 연대 범국민 대책회의 총무국 사무실로 가서 최규성 상집위원에게 건네주려는데 최규성 상집위원이 없어 총무국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에게 "최규성 선배에게 주라"고 말한 뒤 제 불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국주씨가 저를 보고 "왜 기설이 업무일지를 안가지고 왔나?"고 물기에 총무국 방에 두고 왔다고 말한 후 얼마 후 최규성씨를 만나서 "기설이 업무일지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준식이 가져갔다"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 저는 무슨 일로 영안실에 있었는데 서준식씨가 저를 불러서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며 김기설 업무일지를 가지고 세브란스병원 내 어느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웬 남자가 서준식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준식씨가 김기설의 업무일지를 건네주니 그가 보고 "됐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서준식씨가 저를 가리키며 "중인으로 데리고 왔다" 하자 그 남자는 "중인은 필요없을 것이다"라고 하자 서준식씨가 저를 보더니 "괜히 왔구나, 바쁘면 가라" 하기에 그 방을 나왔다.

제가 강기훈으로부터 받은 업무일지는 검은 색 표지에 그 내용물은 연필로 써여진 업무일지 내용에 절취된 부분이 있었다.

1. 이상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72) 지문으로 판독 불가(2자). (수사기록 881정)

1991. 7. 5.
위 진술인 정 윤 서
[자료 가-1-144 (수사기록 884~906)]

진술서

성명 김현수 (金鉉洙) 성별 남
연령 30세 (1962. 2. 11.생)
주민등록번호
본적
자택전화 직장전화

위의 사람은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1. 가족관계

- 부. 김진영 (65) - 무모
모. 정귀례 (64) - 무형.
형. 김중수 (37) - 교사 (서울 한광고)

2. 학력

- 서울 경서중 졸 (1977년 2월)
서울 경성고 졸 (1980년 2월)
성균관대 사학과 입학 (1980년 3월)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1989년 2월)

3. 경력

- 1989년 6월 - 도서출판 증원문화 번역(일어 사회과학 사전 번역)
1989년 9월 - 도서출판 증원문화 입사
1990년 4월 - 도서출판 증원문화 퇴사

4. 전민련에 들어간 일자

1990년 4월 26일 도서출판 증원문화를 퇴사하고 당시 실무자가 없어 사무실 유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소개자 없이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김근태씨에게 실무자로 일하겠다 하여 전민련에 들어가서

1990년 6월까지 특별한 보직이 없이 일하다가 1990년 6월부터 조직국 실무자로 일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음.

5. 친분관계

- 본인이 1990년 4월 26일 이후 전민련에 출근하기로 하였을 때, 강기훈은 당시 사회국 일을 하고 있었으나 아버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오전에 출근을 못하고 오후에 출근했다. 일찍 퇴근하였으므로 자주 볼 수 없었음. 특별한 개인적 관계없이 그냥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였으나 총무국으로 옮겨 2, 3월 이후 컴퓨터 작업을 하며 사무실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민련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유달리 친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컴퓨터, 음악 등에 유달리 재주가 뛰어나 눈여겨보게 되면서 농담도 잘 못하는 편이면서도 가끔 농담을 할 정도로 지냈다.

4월 말 이후 5월 중순까지는 일이 바빠지면서 사무실에는 조직국 2인(김현수, 김형민)과 총무국(강기훈)이 남아 사무실을 지키면서 전화를 받는 일을 하면서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까워졌고, 특히 함께 음악, 컴퓨터 얘기 등을 하며 친해졌으나, 그 직후 유서대필 문제가 터져 특별한 관계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 임무영은 본인이 전민련에 처음 나왔을 당시는 국민연합에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같은 사무실을 쓰기는 하나 행사 때 등 외에는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국은 주로 바깥의 행사에 쫓아다니고 조직국은 사무실을 지키는 일이라서 함께 일을 해본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임무영이가 워낙 사람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성격이라서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쉽게 친해진 편이었고, 1991년 4월 이후 전민련 사회국으로 복귀하면서 상대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나 곧바로 강경대, 김기설 등의 분신사건이 터지면서 사회국은 외부로 조직국은 사무실을 지키는 일로 역할이 나누어져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였다.

- 이동진은 본인이 1991년 4월 말 이후 전민련에 나온 직후인 5월 말-6월 초경 전민련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동진은 본인과 학번은 같으나

삼수를 하였기 때문에 나이는 본인보다 많아 처음에는 호칭 때문에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민련에 오자마자 사회국에 배치되어 함께 일을 하지는 못해 보았으나 기본적으로 성실하며 합리적이어서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결혼한 사람의 처지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특별한 내색을 하지 않아 본인이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생활태도에 관해 많이 배웠던 편이다. 그러나 본인과는 일의 성격이나 관계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 김기설은 1991년 1월 이후에 출근하여 총무국에 배치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선배격이라서 사무실 정리 등을 많이 시킨 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술을 많이 먹는 편이라 나무랐기 때문에 본인을 상당히 어려워 했다. 그 뒤 1991년 4월 이후 사회국으로 재배치되면서 무척 바쁘게 돌아다녔다. 기설이가 어려워 했던 부분을 술을 먹으면서 한번 풀어주려고 했으나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강경대 열사와 원전래이온 이후 만나지 못한 채 분신소식을 듣게 되었다.

6. 행적

- 5월 8일은 오전 8시 30분-9시경 사무실에 있는 정윤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기설의 분신사실을 안 뒤, 연대 학생회관으로 모이라는 전갈을 받아 9시 30분경 연대로 가서 실무자 회의를 한 뒤, 12시경 사무실로 와서 2시경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여, 1991년 7월 6일 오후 1시 30분 육군회관에서 결혼을 하기로 한 상태이므로, 양가 부모님과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광주에서 올라오는 장인 장모를 모셔오고, 저녁에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73) 노량진 근처의 횡집에서 저녁식사 후 귀가.

- 5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사무실 지키면서 근무 후 귀가.

- 5월 11-12일은 연대로 가서 고 김기설씨 장례식 준비 및 장례.

- 5월 13일 사무실 지킴.

- 5월 14일 고 강경대 열사 장례식 참석.

73) 수사기록 기재가 891정에서 900정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연결됨.

-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무실 지킴.
- 5월 18일 고 강경대 열사 장례식 참석 후 귀가.
- 5월 19일부터 20일 사무실 지킴.
-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에 가서 장인, 장모 되실 분 만나고 혼수물품 준비하여 올라옴.
- 5월 30일부터 6월 12일 성대 동문회에서 고 김귀정 양 장례를 준비, 진행하는 일에 참여.
- 6월 12일부터 6월 21일 사무실을 지키면서 결혼식 준비.
- 6월 27일부터 현재 결혼식 준비로 사무실에 출근치 못하고 물품구입 등 결혼준비.

7. 업무일지 전달경위

-1991년 5월 11일 오전 11시경 신창균 의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회국 업무일지를 찾아서 보내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다시 최규성 의장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당시 사무실에 있던 김형민 등과 함께 김기설씨의 책상 위 책꽂이에 있던 업무일지를 찾은 뒤, 어디에서 왔는지는 기억이 안나나 정운서가 사무실로 와서 연대로 간다고 하길래 업무일지를 연대로 가져가서 최규성 의장 등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당시 정운서는 본인 소유 서울 8마 4823 픽업차로 운전하여 연대로 간 걸로 기억하고 있다.

-업무일지를 연대로 가져가기 1-2일전에 김기설의 필적이 남아있는 사회국 업무일지를 찾아 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복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언제 누가 찾아 어떻게 제출하였는지는 알지 못함. 그뒤 11일은 사본은 아니라고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다시 원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음.

-본인이 11일 오전 11시경 업무일지를 찾아 올 당시 일지를 보니 첫째 장이 3분의 2정도 잘려진 상태이고, 둘째 장은 온전한 상태였으며, 글씨체는 김기설씨의 글씨체와 동일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글씨는 연필로 쓴 것, 파란색 펜으로 쓴 것 등이 섞여 쓰여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업무일지의 글씨체는 평소에 유심히 김기설씨의 글씨를 보지는 않았으나 간혹 글씨를 썼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일지를 보며 김기설의 글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국 업무일지 사본 3장을 보니 첫째 장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닌 것 같고 둘째 장 중 "49 4월 혁명 기념대회 준비"는 누구 글씨인지 알 수 없으며 나머지 지와 세째 장은 김기설씨의 글씨인 것 같다.

-11일 오전 11시경 본인이 업무일지를 정운서를 통해 연대로 전해줄 당시 임무영이나 강기훈은 업무일지를 보거나 받아볼 수 없었으며, 본인이 알 수는 없으나 1-2일 전 업무일지를 처음 보았다고 할 때도 임무영이는 항상 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며, 강기훈이가 그것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8. 수첩 발견, 보관, 전달 경위

-1991년 5월 19일 오전 12시경 명동에서(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이동진으로 기억하고 있음) 전화가 와서 김기설의 수첩을 찾아야겠는데 이보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성당에 있는 이보은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이보은이는 교회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통화를 못하고 동생에게 예배가 끝나는 대로 전화를 해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2시경 이보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첩의 소재를 물으니 연대 상황실에서 가져온 서류 박스 속에 있을 것이라 하여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서류박스(3종류의 서류박스로 큰 것 2개, 작은 것 1개에 각종 서류와 문구류가 들어 있었음)를 뒤져 김기설 분신관련 자료라고 써여 있는 서류봉투에서 수첩을 발견하여 내용을 훑어보니 부분적으로 글씨체가 남아 있어 글씨체가 남아 있는 부분만을 뽑아서 20부 가량 복사해 놓은 뒤 수첩은 다시 봉투에 넣어 김기설씨의 책상서랍에 넣어두었음.

그뒤 3시경 이동진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수첩을 찾았다고 하니 그것을 명동으로 가져달라고 하였으나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 나갈 수가 없으므로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고 통화를 끝냄.

그뒤 4.50분이 지난 뒤 이동진씨가 와서 수첩을 보여주고 복사한 것은 이동진씨에게 전달하여 이를 이동진씨가 명동으로 가져감. 이동진씨가 왔을 때는 복사는 끝났으나 낱장으로 되어 있어 수첩의 순서대로 분류를 하고 있었음.

로 분류를 하고 있었음.

-그후 저녁 9시경 명동에서 다시 이동진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첩원본을 명동으로 가져오라고 하여 잠시 후 명동으로 가서 이동진씨에게 수첩원본을 전달한 뒤 귀가.

-수첩을 발견한 당시의 형태는 주소록 부분 3장 정도 따로 떨어져 있었고, 전체적인 글씨체는 김기설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소를 적어놓은 부분은 파란색 펜으로 써여져 있었고 약속을 적어놓은 부분은 연필, 검은색, 파란색 펜들이 무질서하게 써여져 있었다.

1991년 7월 5일

김 현 수

☐자료 가-1-145 (수사기록 907~916)

진 술 조 서

성 명 김 현 수 (金鉉洙)

주민등록번호

주 거 서울 5

본 적 충북

직 업 전민련 조직부장

연 령 29세 1962. 2. 11.생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전민련 조직국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같은 전민련 총무국 부장으로 일하는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귀청의 출석요구를 받고 금일 출석하였으니 위 사건에 관하여 물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김현수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전민련 조직국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을 아는가요.

답 : 예, 김기설이 1991. 1.경부터 저의 전민련 총무국, 사회국 등에서 일해 왔기에 잘 알고 있는데 김기설은 금년 5. 8 아침 8시경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살을 한 바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강기훈을 아는가요.

답 : 예, 강기훈 역시 저의 전민련 총무국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강기훈이 죽은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는 등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당청에서 구속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전민련에 가입한 일자, 가입동기 및 전민련에서 맡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1990. 4. 26.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의 권유로 전민련에 가입하여, 처음 약 2개월간은 배속이 없다가, 1990. 6.경부터 전민련 조직국에서 주로 전민련 내 연락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가요.

답 : 1991. 5. 8. 오전 8시반에서 9시경 전민련 사무실에서 정운서가 저의 집으로 전화연락을 해주어 김기설의 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김기설의 분신 연락을 받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요.

답 : 오전 9시반경 연세대 학생회관에 있는 범대위로 가서 전민련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여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김기설에 대한 분향을 마친 뒤 낮 12시경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로 와 오후 2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8 김기설 분신자살 후 같은 달 9일부터는 주로 전민련 사무실에 있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전민련 사무실에서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요.

답 : 전민련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는 등 연락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문 : 그때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요

답 : 김형민, 강기훈과 저 모두 세사람이 주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전민련 사회국에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답 :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를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연세대 학생회관에 있는 김기설 분신 대책위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직접 대책위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 제 대학 1년 후배이자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부장인 정윤서를 통해 연대에 있는 대책위에 전달하였습니다.

문 : 전민련 사무실에서 사회국 업무일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언제, 누구에 의하였는가요

답 : 금년 5. 10. 오전 11시경 제가 신창군 전민련 상임의장과 최규성 서울민협의장으로부터 사회국 업무일지를 찾으라는 전화를 받고 김기설의 책상 책꽂이에 있는 업무일지를 찾아 강기훈, 김형민, 이혜정, 노운협 소속 성명불상의 청년 1-2명이 함께 업무일지를 살펴보았더니 유서글씨와 비슷하기에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때마침 사무실 요원의 연대 측에 전달할 사람이 없어 김기설 책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5. 11. 오전 11시경 다시 연대로 업무일지를 보내라는 전화연락(전화를 건 사람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음)을 받고 제가 다시 업무일지를 꺼내어 정윤서에게 건네주고 이를 연대 최규성 의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정윤서는 그때 진술인이 아닌 강기훈으로부터 업무일지를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거짓 진술을 하는가요

답 : 거짓 진술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정윤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정윤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문 : 진술인은 진술서 작성 당시 5. 11. 오전 11시경 처음 전화를 받고 곧바로 업무일지를 찾아 연대 측에 제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진술을 하는가요

답 : 실은 제가 5. 10. 처음 업무일지를 발견하고 5. 11. 연대쪽으로 전달한 것인데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문 : 처음 업무일지 발견 당시 업무일지 형상은 어떠한하였는가요

답 : 처음 업무일지는 3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맨 앞장은 3분의 1정도 남기고 찢어진 상태였고, 그 뒤로 2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문 : 업무일지의 필적은 누구의 필적이라고 보이던가요

답 : 맨 앞장의 필적은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뒤 2장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으로 보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의 필적을 잘 알고 있는가요

답 : 제가 김기설의 필적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 : 그렇다면 왜 업무일지 2장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 김기설의 명의 유서의 필적과 업무일지의 필적이 유사하기에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죽기 전의 김기설의 필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 : 업무일지의 필적은 어떠한 필기도구로 작성되었던가요

답 : 연필로 작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그렇다면 왜 진술서 작성 당시 연필과 파란색 펜으로 섞어 쓰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가요

답 : 연필로 작성된 것이고 파란색 펜으로 작성된 것은 기억이 없는데 잘못 진술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업무일지 사본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문 : 업무일지 둘째 장의 "49 4월 혁명 기념대회 준비"라는 필적이 다른 필적과 다르거나 필기구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겠는가요

답 : 필기구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49 4월 혁명 기념대회준비"라는 필적은 다른 필적과 약간 다른 것처럼도 보이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조국은 하나라는 전민련 91년 수첩을 김기설의 것이라고 보관,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수첩을 처음 발견한 것은 언제 인가요

답 : 금년 5. 19. 오후 2시경 이보은의 전화연락을 받고 전민련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서류박스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문 : 수첩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5. 19. 낮 12시경 명동성당에 있는 전민련 사회국 부장 이동진이 전화를 걸어와 수첩을 찾으라고 하면서 이보은에게 소재를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이보은과 전화통화를 하여 수첩이 연대측에서 건너온 서류박스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첩을 찾게 된 것입니다.

문 : 수첩을 찾아서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우선 필적이 남아 있는 수첩 부분을 약 20부 복사하여 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전민련 사무실로 찾아온 이동진에게 복사본을 건네주고 명동성당 안의 대책위에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 수첩 원본은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원래의 사각봉투(표지에 김기설 분신관련 자료라고 써 있음)에 넣어 김기설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가 그날 밤 9시경 이동진으로부터 수첩원본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직접 수첩원본을 이동진에게 전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수첩을 발견하였을 때 수첩 형상은 어떠한하였는가요

답 : 수첩 전화번호부란 3장이 찢겨져 있었고 맨끝의 메모란도 몇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 : 전화번호란의 필적과 필기구를 확인하였는가요

답 : 필적은 유사필적과 유사하였고 필기구는 파란색 잉크였던 것 같습니다.

문 : 진술인은 명동성당에 수첩원본을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제출한 것인가요, 원본을 제출한 후 복사를 한 것인가요

답 : 먼저 사본을 전달하였다가 이동진의 연락을 받고 원본을 전해 준 것입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차회 소상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김현수
1991. 7. 5.
서울지방검찰청
검 사 윤 석 만
검찰주사(보) 안 호 성

☐자료 가-1-148 (수사기록 917~929)

진술서

성 명 이 동 진 (李 東 泰) 성 별 남
연 령 31세 1960. 9. 8생
주민등록번호
본 적 전북
주 거 경기도
자택전화
직 장 전민련 현재 국민연합 소속

위의 사람은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함.

1. 전민련에 들어간 시기

◦ 1990년 5월 중순경, 전청대협 의장 이범영 씨의 소개로 전민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민련에 들어가서 곧바로 사회국에서 일해오다 1991년 4월 초순경 국민연합에 파견되어 있던 임무영씨가 전민련으로 복귀하면서 대신 본인이 국민연합 파견자로 현재까지 일해왔다.

◦ 김기설을 알게 된 시기는 1990년 말 혹은 91년 1월 초경 전민련 조직국에서 일하고 있던 김현수씨가 사회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 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기독교회관 지하다방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되었다.

◦ 김기설씨는 91년 1월 초경 전민련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총무국에서 업무를 익히고 그후 사회국으로 배치하기로 한 상집위의 결정에 따라 총무국에서

3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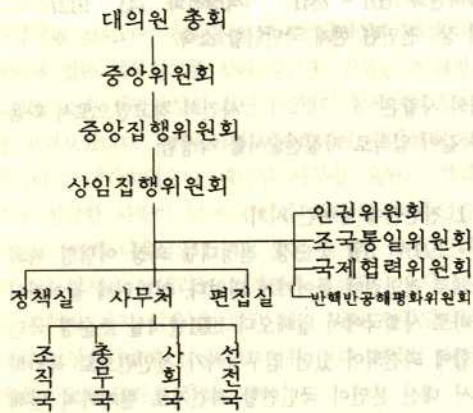
○ 총무국에 있을 당시 김기설씨의 임무는 주로 문서정리나 문서수발 상집회의 문건 복사 및 정리 등 주로 내부 업무를 맡아서 해왔다.

○ 임무영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본인이 90년 5월 중순경 전민련에 들어와서 였다. 당시 임무영씨는 사회국 성원이었으나 국민연합에 파견된 상태에서 국민연합에서의 역할은 총무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민연합의 총무부는 임무영씨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재정관리, 문서수발, 회의자료 준비 등의 일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강기훈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역시 90년 5월 중순 본인이 전민련에 들어오고 나서였다.

○ 강기훈씨는 본인이 전민련에 들어올 당시 사회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후 91년 2월경 총무국으로 배치되어 현재까지 일해왔다.

2. 전민련의 조직기구



○ 사회국은 사무처 산하의 부서로 국장과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나 국장은 본인이 전민련에 들어온 90. 5. 중순경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고 부장으로는 임무영, 강기훈, 남중현, 그리고 본인이 있었으며 그중 임무영씨는 국민연합에 파견되어 있다가 3월 말 혹은 4월 초경에 전민련에 복귀하였고 강기훈씨는 91년 3월경 총무국으로 배치되었으며 남중현씨는 강기훈씨가 총무국으로 배치될 즈음에

전민련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리고 김기설씨가 91년 1월 초경 전민련 총무국에서 일을 하다 3월말경 사회국으로 배치되었으며 본인은 4월 초 임무영씨가 전민련에 복귀하는 대신 국민연합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국민연합에서 일하고 있다. 단 전민련의 대다수 간부와 실무자들이 상당수가 구속 수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민련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상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전민련에 복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3. 전민련 내 업무일지 또는 상황판 작성부서

먼저 업무일지나 상황판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면 전민련에서 일부부서가 시행하던 업무일지나 상황판은 일반회사의 업무일지와는 달리 각 부서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다. 사회국의 경우 90년 10월경부터 상황판이라는 이름으로 각 단체의 집회일정, 사회국내의 업무일정, 회의일정 등을 기록하다가 한달 정도 후에 잘 실시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다. 당시 상황판 작성자는 남중현, 이동진, 강기훈이었는데 주로 남중현씨가 기록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후 사회국에서 본인이 국민연합에 파견될 당시 본인의 개인적 견해와는 달리 파견업무를 맡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월 말경부터 4월 초 파견 당시까지 전민련의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임무영씨는 공식적으로 복귀하기 전부터 국민연합과 전민련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관계로 전민련의 일을 맡아왔다.

사회국 내에서 올해 작성되었다는 업무일지는 본인은 본 적이 없어서 작성시거나 기간 모양을 알 수 없고 다만 90년 10월경부터 작성하다가 만 상황판의 경우는 하늘색 종이표지의 홀더 안에 복사용지로 된 일자와 상황난이 있는 것이었다.

상황판의 경우 필기도구는 여러 사람이 쓴 것이어서 일정하지 않으나 검정색 플러스펜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홀더 안쪽 면에 많은 낙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사회국 업무진행표라는 것은 본인은 본 일이 없다.

전민련에서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나 사회국 업무진행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단순히 업무일지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업무일지는 본인과 남중현씨 강기훈씨가 작성한 상황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회국 업무진행표라는 것에 대해 앞서 본인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본인이 그것을 작성하지 않았고 또 3월 하순경부터는 임무영씨의 전민련 복귀 대신 본인이 국민연합에 파견되어 일하라는 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당시 사회국 업무진행표에 '3/20. 경수 노련관련 경기도경 향의방문 및 대공분실 방문'이라는 업무내용을 기입하고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본인이 기입한 이 일정 외에 앞에 기입된 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의 일정이 기입되었는지, 본인이 이외에도 다른 내용을 기입한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다만 있다면 본인이 기입한 것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검사가 본인에게 제시한 사회국 업무진행표라는 문건 중 맨 앞장의 '3/20, 10시 30분 530 경수노련 관련 경기도경 향의 방문 및 대공분실 방문'의 필적은 본인의 필적으로 생각되며 동 문건의 다음 페이지 '3/23, 속초 동우전문대 정연석학생 분신 진상조사(실무자)'에서부터 '4/15, 원진레이온 2차 확대회의의 참가'까지는 한 사람의 필적으로 보이며 고 김기설씨의 필적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유서를 누가 대필하지 않았다고 믿는 본인으로서 유서의 필적과 상기 필적들이 동일하게 보이고 유서는 고 김기설씨가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수첩의 전달경위

5월 18일 강경대군 장례식이 있던 날 시내에 나갔다가 석간신문에서 유서대필에 관한 기사를 보고난 후 밤 8시경에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농성장 정리를 마친 후 서준식 위원장, 본인, 강기훈, 박홍순씨 등 전민련 관계자들이 모여 우선 김기설씨의 필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기설씨

의 수첩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수첩보관자를 알아보던 중 이보은씨가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

다음날 오전 본인이 사무실에 전화연락을 하여 당시 전민련 사무실에 있던 김현수씨에게 이보은씨한테 연락을 해서 수첩 보관처를 확인하라는 말을 전했다. 그후 두어 차례 사무실에 수첩을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다가 오후 2-3시경 수첩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본인이 명동성당에 수첩을 가져오기 위해 전민련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 김현수씨를 도와 4-5부의 수첩복사본의 페이지 정돈하는 것을 거들었고 복사를 마친 후 5-6시경 김현수씨와 함께 김현수씨 차를 타고 명동성당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김기설씨의 중요한 필적을 찾았으니 이에 유서대필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지게 되었다며 다소 안도하고 있다가 서준식 위원장이 원본을 가져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 김현수씨가 가져오기로 했고 김현수씨는 사무실에 보관했던 수첩원본을 밤 10시경에 명동성당으로 가지고 왔다.

복사할 당시의 수첩상태는 뒷부분 전화 메모지가 몇장 찢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글씨의 색깔은 대부분 검정인 것으로 기억되나 정확한 것인지는 확실할 수 없다.

6. 승의여전 학생 메모 전달과정

91. 5. 21.경(정확지 않음) 오후 2-3시쯤 전민련 사무실에서 조직국 부장 김형민씨로부터 김기설씨가 승의여전 학보사에 신문원고를 써주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학보사 관계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던 차에 "잠깐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잠시 뒤에 승의여전 총학생회 회장(이보령)으로부터 자기가 김기설씨한테서 건네받은 메모지가 있는데 필요한지를 물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한 후 "내가 찾아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3-4시경 승의여전 학교 입구 공중전화로 "학교 앞인데 나와달라"고 하자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000(고급음식점인 듯)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앞의 이보령양 외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이 나왔다. 본인은

이들 3인과 함께 명동성당으로 함께 걸어가서 전민련 서준식 위원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승의여전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갖기 전날 메모지를 전달받았으므로 5월 21일로 앞서 불확실하게 진술한 내용은 5월 20일이 맞다.

또 승의여전 학생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모지는 이보은씨가 관리해 온 007가방 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기억된다.

1991. 7. 5
위 진술인 이 동 진

는 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당시 사회국 업무진행표에 '3/20 경수노련관련 경기도경 항의방문 및 대응분실 방분' 이라는 업무내용을 기입 하기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본인이 기입한 이 일정보외에 앞서 기입된 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의 일정이 기입되었는지, 본인이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입한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다만 본인이 기입한 것은 극히 적은 점임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전사가 보아에게 제시한 사회국 업무진행표라는 문건중 맨 앞장의 "3/20. 10시 30분 ~ 5:30 경수노련 관련 경기도경 항의 방분 및 대응분실 방분" 의 필적은 본인의 필적으로 생각

384-33(2-1)A 84. 9. 8 승인 조서용지 190mm x 265mm (신문용지 548/4)

* 상고이유보충서(총자료집 773쪽) 관련 원본 게재.

자료 가1-147 (수사기록 930~933)

자 술 서

성 명 : 강기훈

1. 업무일지 제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5월 10일-11일경에 검찰에서 김기철의 필적을 찾는다는 소식을 사무실 내 상근자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전화로 연세대 쪽에서 이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를 비롯한 전민련 실무자들이 필적을 찾으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아마 김현수 선배(전민련 조직국 부장) 기철의 책상에 서 사회국 업무일지를 찾았던 것 같고 (누가 찾았는지 불명확하며, 당시에 정책실 상근자와 노운협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10일 낮시간에 찾은 업무일지를 기철의 책상위에 펼쳐 놓고 "유서의 글씨와 같다"며 5-6명이 모여 같이 이야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업무일지의 정확한 내용과 필체, 형태에 대해서 저는 잠시 보고나서 9일 전국상황 정리를 위한 타이핑을 했고 낮시간이 지나서는 성은을 만났기에 그 이후로는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은을 만나고 들어온 이후 업무일지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초 검찰에서 진술할 때 업무일지를 보지 못했고 진술한 것은 업무일지를 잠깐 스쳐지나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수첩 등 필적의 위조로 저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일지를 보았다고 하면 이것도 위조했다고 몰릴 것이 조금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업무일지의 제출경위의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자 술 서

성명 강기훈

1. 업무일지 제출경위에 대해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5월 10일 ~ 11일 경에 검찰에서 김기철의 필적을 찾는다는 소식을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전화로 연세대 쪽에서 이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를 비롯한 전민련 실무자들이 필적을 찾으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아마 김현수 선배(전민련 조직국 부장) 기철의 책상에 서 사회국 업무일지를 찾았던 것 같고 (누가 찾았는지 불명확하며, 당시에 정책실 상근자나 노운협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10일 낮시간에 찾은 업무일지를 기철의 책상위에 펼쳐 놓고 "유서의 글씨와 같다"며 5-6명이 모여 같이 이야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384-33(2-1)A 84. 9. 8 승인 조서용지 190mm x 265mm (신문용지 548/4)

데, 11일 오전에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내근자인 김형민, 김현수 선배중에 한사람이 제출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지난 명동농성의 과정에서 서준식 선배가 연세대에서 임무영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들은 바를 종합하면 김형민, 김현수 선배 들중에서 하나가 연세대로 전달했고 이를 임무영이 받아 서준식 선배에게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5월 10일 본 업무일지의 형태는 총 3장였고 검찰에서 본것과 같은 형태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다만, 첫장이 4분의 3가량이 찢어져 있는 것을 검찰에서 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찢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첫장이 온전하게 붙어 있지는 않았으나

(아래부분이 조금 너덜했음), 그렇게 많이 찢어져 있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너덜한 부분에 글씨는 씌어있지 않았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원본을 보았을때 두번째장 중하단부분이 볼펜으로(파란색) 쓰여진 부분은 처음 보았을때는 없었던 것 같으며, 대체로 다른부분은 연필로 쓰여지고 조금 흘린 글씨였다고 기억됩니다.

검찰에서 업무일지의 복사본을 보고 업무일지 2번째장 중하단의 "4월혁명 기념대회 준비"가 다른 것들과는 다른 필적이며 필기구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필적은 다른것이 없고, 한사람의 필적(맨앞장을 제외하고)으로 보였으며, 필기구가 다르다는 것은 정확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번째, 3번째장은 1번 혹은 2번에 나누어 한꺼번에 기재되었음을 원본을 보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10일 오전에 잠시 보았던 것과 검찰에서 확인한 것의 확실히 다른 부분은 파란색 볼펜글씨이며, 이는 10일 보았을때는 없었거나, 연필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전체적인 내용상으로는 김기철의 내용이 맞으나 수첩의 글씨와 같고, 특히 전화번호부 부분이 찢어진 조각리들이 본체와 맞지 않는 등 수첩이 조작된 사실에 비추어 업무일지의 글씨는 기철의 글씨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1년 7월 5일

장기훈

☐자료 가-1-148 (수사기록 934~95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688-2012)

이화삼 23110-7381 1991. 7. 474)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조 검사 윤석만
제목 필적감정의뢰 회보

1. 강력23110 - 016452 (1991. 6. 27.)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부 : 감정서 1부.
사진 17매.
증거물 10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뢰장 23110-7381 (698-2012) 1991. 7. 4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조 검사 윤석만
제목 필적감정의뢰회보

1. 강력23110-016452(1991. 6. 27.)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부 : 감정서 1부.
사진 17매.
증거물 10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삼

74) 7. 5.에 검찰청 접수.

1991년 7월 4일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삼과

문서감정실

의뢰관서명 : 서울지방검찰청

이화삼

감 정 서

이화삼 23110호(대 강력 23110-016452 호 199 1 년 6 월 27 일)

의뢰관서명: 서울지방검찰청

1. 증거물: 가. (1) 유서 2매.
 나. (2) 전민연제출 수첩 1권.
 다. (3) 강기훈의 수첩 1권.
 라. (4) 강기훈의 노트 1권.
 마. (5), (6), (7) 강기훈의 자술서 및 진술서 3부.
 바. (8) 강기훈의 향소이유서 1부.
 사. (9), (10) 강기훈 작성 필적 2부.

2. 감정사항: (1) 유서 2매의 필적과 위의 (2) - (10) 필적과 이동여부.

3. 감정방법: 현미경, 확대투영기,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등을 사용하여 전체적 인 필의 구성과 배자(配字)의 형태, 필세(筆勢), 필순(筆順)에 의한 운필 (運筆)순서와 조형미,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운필(運筆)상태를 검사하고 기필(起筆)부분과 종필(終筆)처리부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및 속련과 미속련 차이,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특징, 개인의 특성, 잠재습 성 등을 주시검사 하였음.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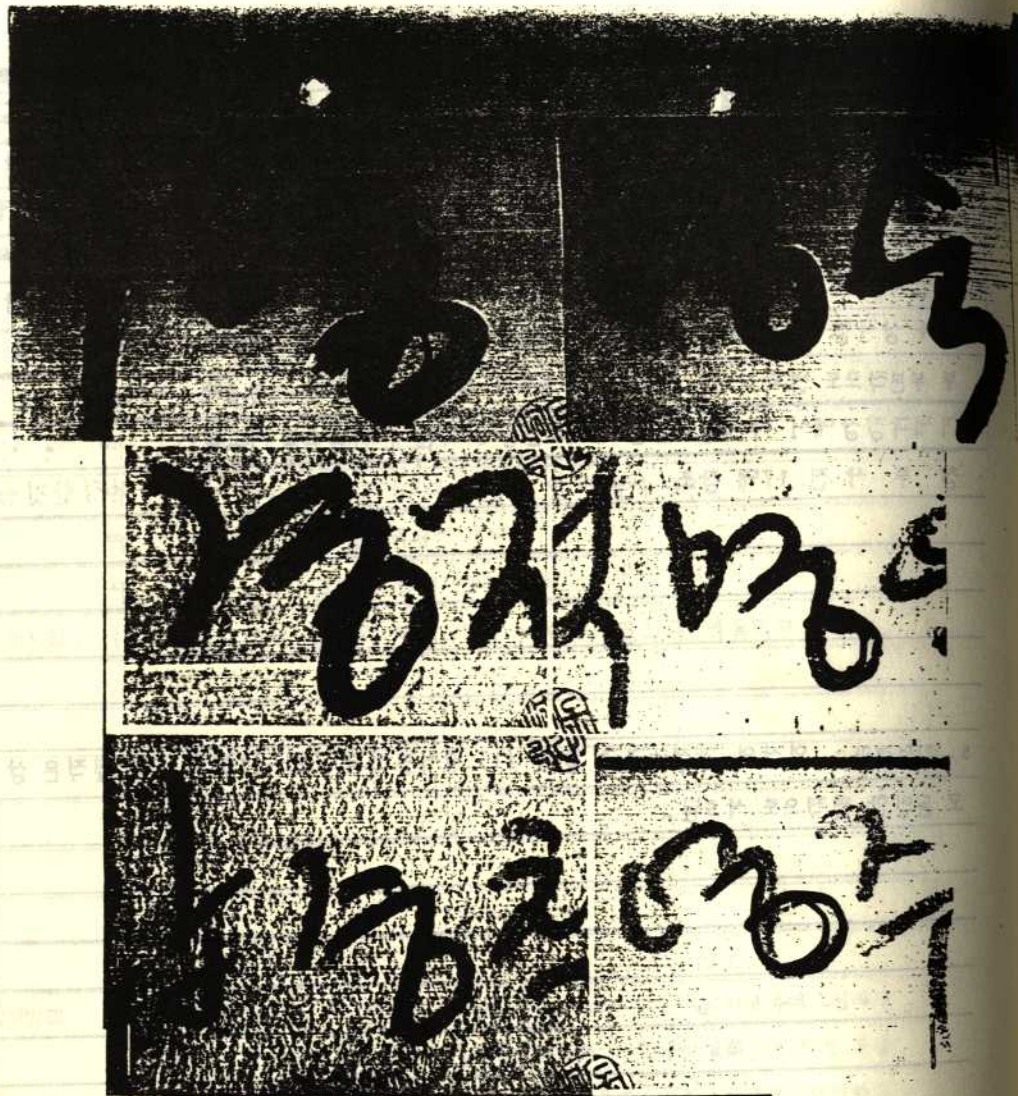
4. 감정소견: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정밀감사에서 수첩과 노트, 자술서 및 일련필적등은 필기구가 다르고 기재연도에 의한 변화점이 있으며 기재조건과 상황에 의한 변화상태 도 있고, 문서에 딱박서는 동일내용의 문자가 부족된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참 조하면서 각 문서에 (2) - (10)기재된 필적과 유서필적을 대조한바, 첨부된 사진제 1 - 17호의 주선표시와 같이 동일내용의 문자에서 운필구성과 배자의 형태, 필획간의 연결되는 위치와 각도, 특정필획의 장단부분과 생략된부분 또는 침범된 형태등에서 다 수의 상사점이 관찰되고, 속련된 기재습성등에서도 특징적인 상사점이 관찰되며, 일 부 부분적으로 변화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특징을 기 존하여 보았을때, 이러한 차이는 기재과정상에서 나타날수있는 기재조건등에 의한 변화점으로 사료됨. ^{이러한 점에} 참 부 사진 17매 참조. ^{이러한 점에} 감정 결과에 대하여 의뢰로 선정할것임

5. 감정결과: 이상의 감정소견과 같이 (1) 유서필적과 (2)-(10)의 모든 필적은 상 호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

19 91 년 7 월 4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상좌: 1.유서, 상우: 3. 강기훈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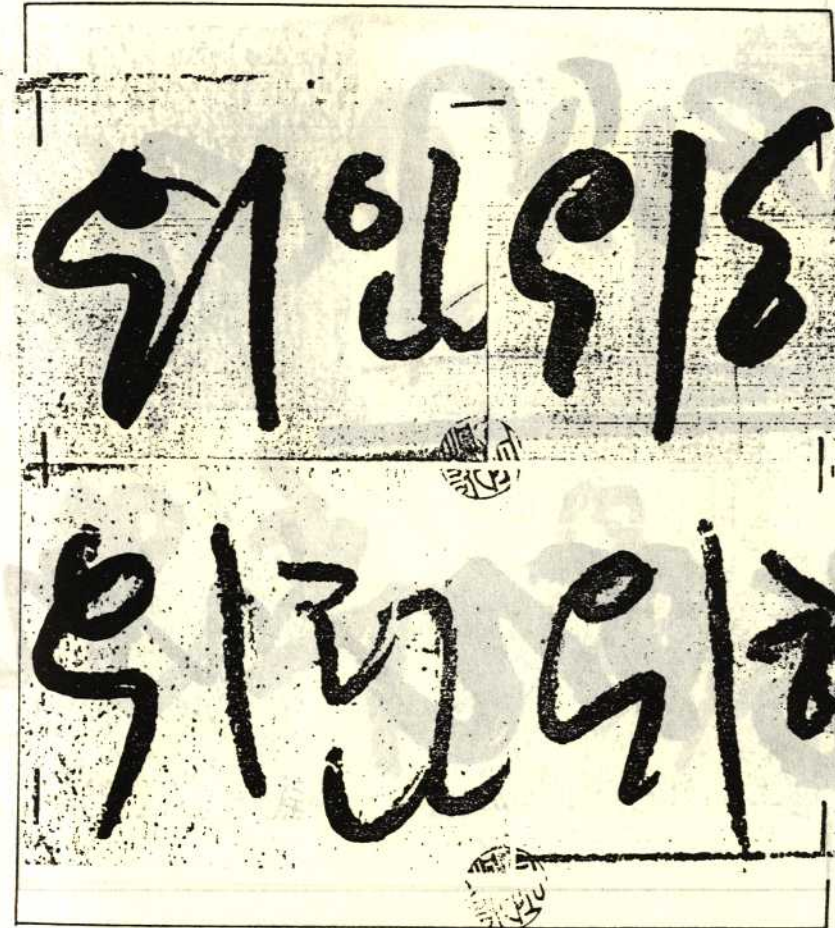
중좌: 9, 중우: 10. 강기훈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좌: 강기훈전술서, 하우: 3. 강기훈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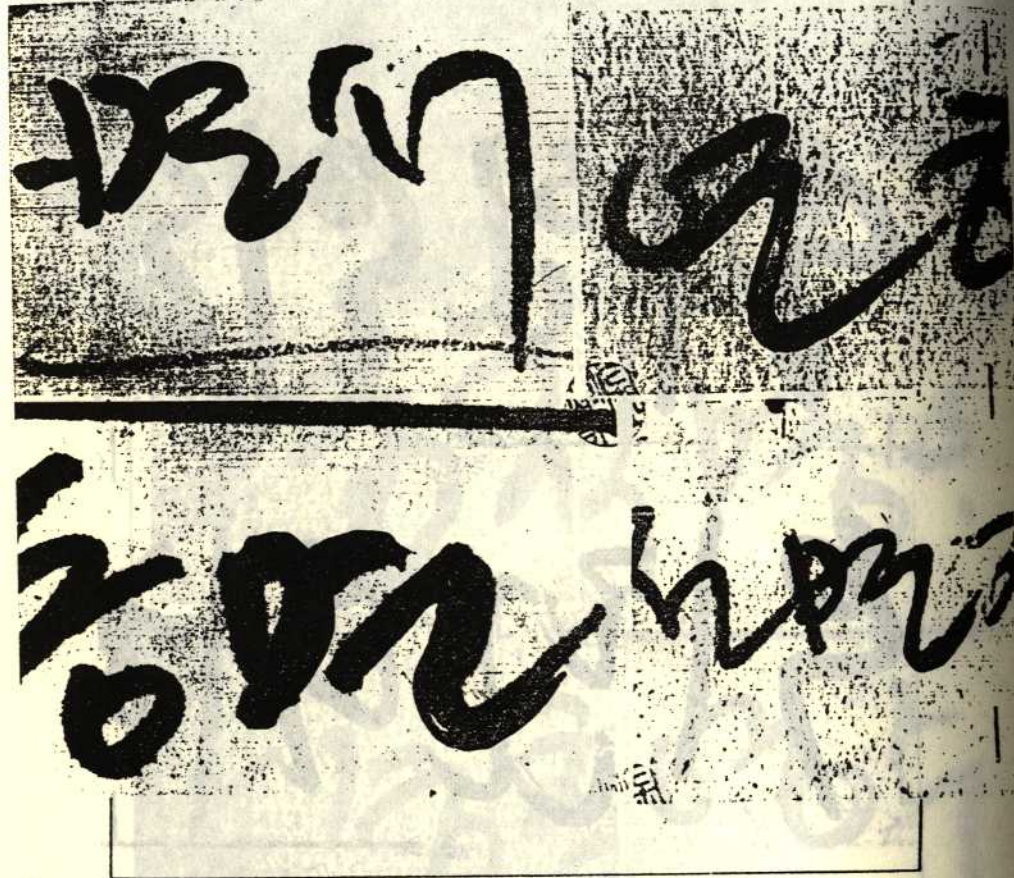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좌: 10. 강기훈필적, 하우: 8. 강기훈상우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계 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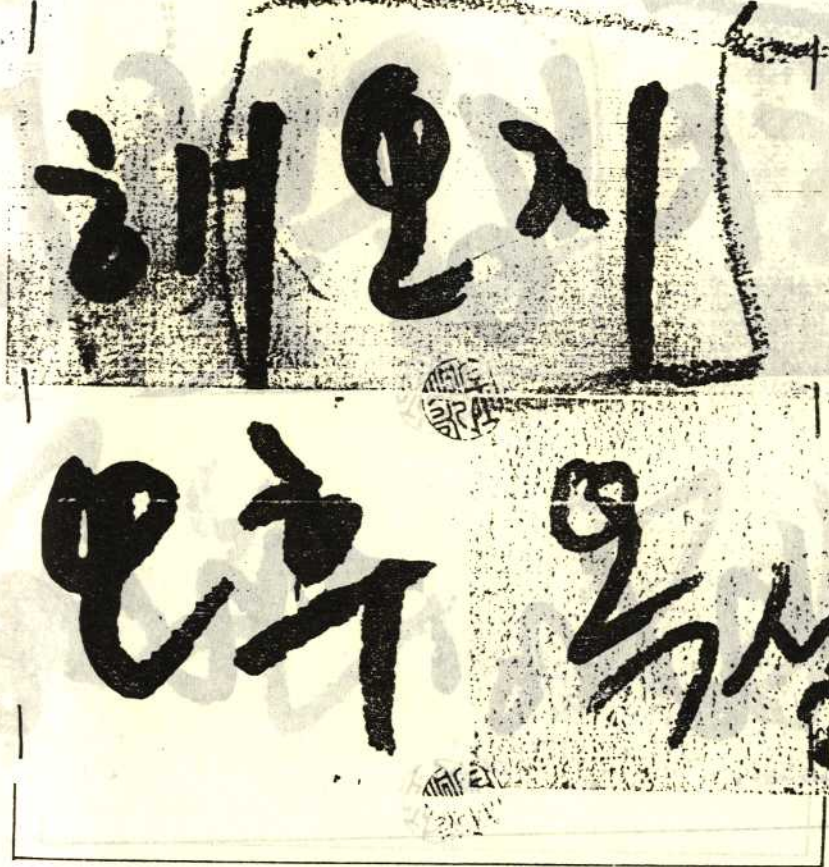
상좌: 1.유서, 상우: 7.강기훈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좌: 3.강기훈수첩, 하우: 10.강기훈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계 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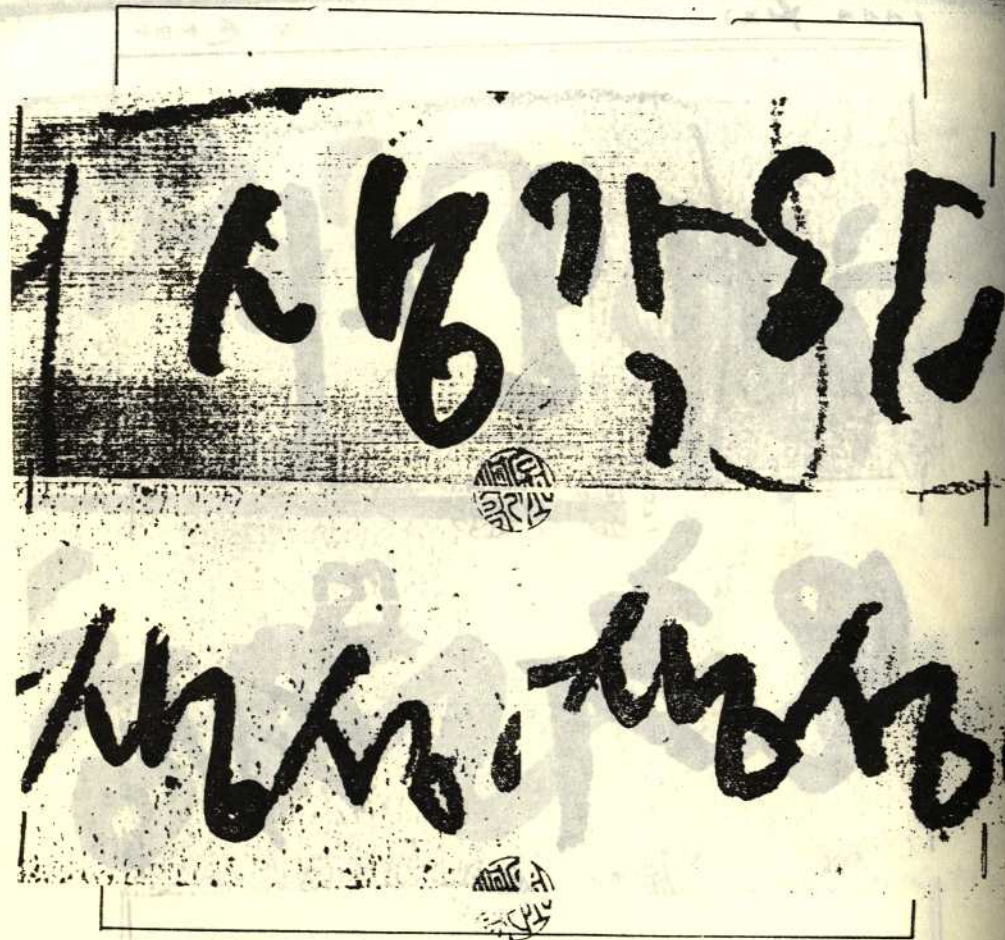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좌: 3.강기훈수첩, 하우: 7.강기훈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사분서입니다

(사진계 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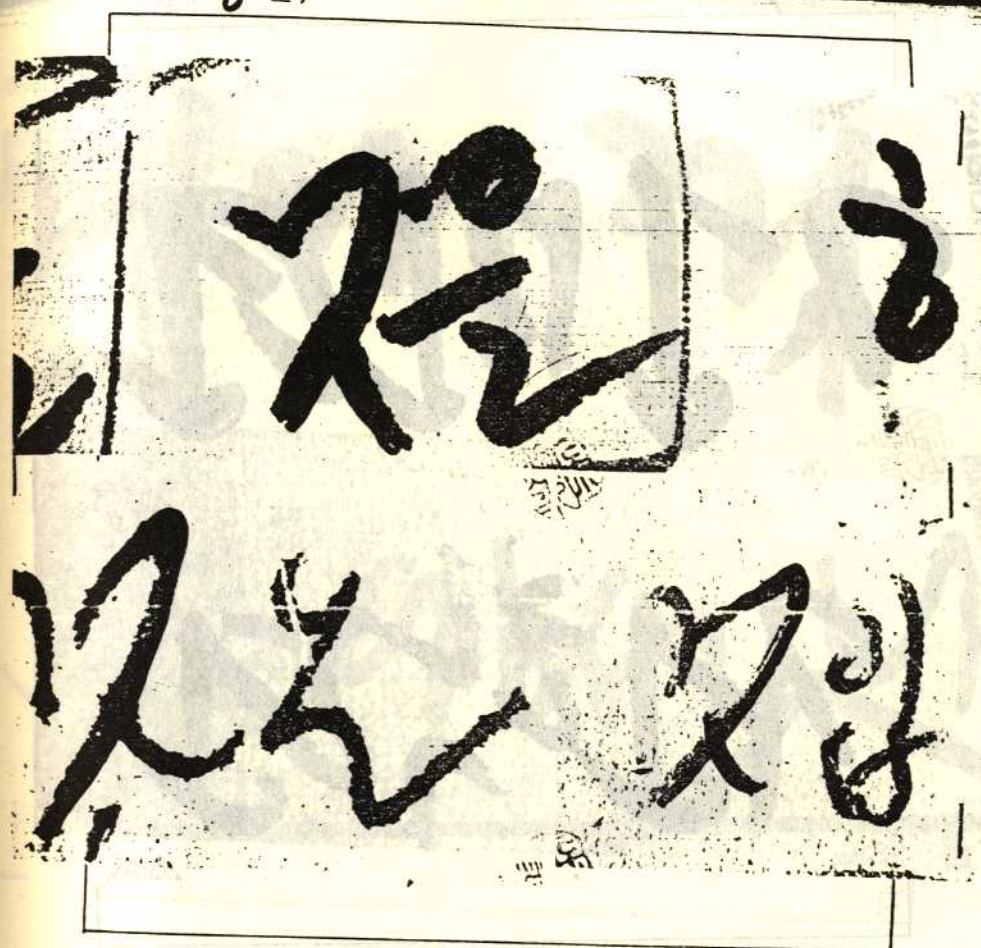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아작: 10.강기운필적, 아우: 4.강기운공책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 문서입니다

(사진계 6 호)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아작: 9.강기운필적, 아우: 7.강기운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 문서입니다

(사진제 7 호)

정미경
진학경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아: 6.강기훈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111

이이이
이이이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아: 6.강기훈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P45